

# 金元四大家의 鍼灸治療에 대한 研究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片秀範 · 尹暢烈\*

## 對金元四大家鍼灸治療方面的研究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片秀範 · 尹暢烈

刺絡出血療法方面, 金元四大家在鍼灸上多使用了刺絡法. 劉完素在臨床上, 刺絡出血以大刺八關法, 進行清熱瀉火. 這與瀉火派思想相一致. 張從正也受劉完素的影響, 用鐮針多方面使用刺絡出血療法, 不僅用於外科疾患, 還用於內科疾患的治療. 擴大了其使用範圍, 使刺絡出血療法更加得到了發展. 李東垣也在瀉陰火法上, 廣範使用了刺絡出血療法. 朱震亨在針刺補瀉上, 也認為針只有瀉的功效無補的功效, 主張在瀉法上使用刺絡出血法.

劉完素在取穴方面, 主張用通經接氣法, 以及接經三法, 在痛症上用分經取穴法等, 來疏通經脈的氣血. 在臨床上重視了井穴, 原穴和五俞穴. 張從正對經絡臟腑之病. 常以循經取穴法取經絡之井穴, 進行刺灸治療. 李東垣為補益脾胃, 取腹的募穴和下合穴, 以及以虛則補其母的方法進行取穴, 并以五亂針法和標本治療應用五俞穴進行了治療. 朱震亨補充增入了十二經見症和合生見症, 并以說明了各經絡的病症特点, 指出病症的鍼灸治療方法. 劉完素遵循了中風分六經針刺法和心痛的接經三法.

Key Words : 金元四大家, 刺絡出血, 鍼灸治療, 大刺八關法.

## I. 緒論

韓醫學의 學術史에 있어서 가장 多樣하고 獨창적인 理論이 發表된 것은 金元時代(1115~1368年)에 이르러 이른바 金元四大家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四大家에 對하여서는 後世에 약간의 見解差異가 있기는 하지만, 대개 劉完素(1120~1200年), 張從正(1156~1228年), 李杲(1180~1251年), 朱震亨(1281~1358年)을 四大家로 稱하였다<sup>1)</sup>. 이들 金元時代의 醫家들은 陰陽五行과 五運六氣를 人體의 臟腑經絡에 配合한 것은 대체로 一致되나 그 治法에 있어서는 각기 그 所見을 달리하고 있다<sup>2)</sup>.

이러한 金元四大家의 주요 理論을 살펴보면, 劉完素는 主火論을 主張하였고, 張從正은 劉完素의 理論을 이어 받았으나 治法에서는 汗吐下 三法을 多用하였다. 李杲는 易水의 張元素에게서 臟腑病機學說을 傳受받아 脾胃論을 發表하였고, 朱震亨은 劉完素의 再傳弟子인 羅知悌에게 醫學을 傳受받아 劉完素의 影響을 많이 받았지만 李杲와 張從正의 著書도 습득하여 獨創의인 滋陰論을 主張하였다<sup>3)</sup>.

지금까지 金元四大家의 各各의 學術思想이나 金元時代醫學의 特徵에 대해서는 先行研究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金元四大家를 위시한 金元時代의 鍼灸治療에 대해서는 거의 研究가 이루어진 것이 없다. 이

\* 교신저자: 尹暢烈,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042) 280-2601, yooncy@dju.ac.kr

1) 송철호, 홍원식, 김광호. 金元四大家에 관한 研究. 慶熙韓醫大論文集 Vol. 9. 1986. p. 52.

2) 최삼섭. 李東垣의 生涯와 醫學思想. 慶熙大韓醫大論文集 V4. 1981. p. 302.

3) 송철호, 홍원식, 김광호. 金元四大家에 관한 研究. 慶熙韓醫大論文集 Vol. 9. 1986. p. 52.

에 著者는 金元四大家의 鍼灸治療를 중심으로 기타 관련된 內容을 研究하여 얻은 바가 있어 보고하는 바이다.

## II. 本 論

### 1. 劉完素의 鍼灸治療法

金元四大家中 가장 앞선 醫家인 劉河間은 주로 『內經』과 『傷寒論』의 影響을 받아 醫學思想을 定立하였다. 그는 『素問』의 病機와 運氣學說을 정밀히 研究하여 火熱이 病을 일으키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주장하여 治療에 寒涼藥을 善用하였으며, 鍼灸治療面에서 그의 著書 중 『素問病機氣宜保命集』에 鍼灸治療方法이 적지 않게 記載되어 있는데, 그는 鍼灸治療에서 瀉法을 多用하였으나, 臨床治病에서 단순히 苦寒瀉熱, 針刺瀉血만을 使用한 것은 아니고, 各病症에 근거하여 辨證施治하여 그 역시 溫補法 혹은 灸法을 使用하였다<sup>4)</sup>.

여기서는 『素問病機氣宜保命集』의 鍼灸治療 중에 六經을 나누어 中風治療한 것과, 心痛에 대한 治療, 瘡瘍에 대한 鍼灸治療, 痛症에 대한 治療, 大刺八關法 등에 대하여 나누어 그의 鍼灸治療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中風治療의 分六經針刺法

河間은 臨床治病에서 藥과 針을 사용함에 모두 經脉辨證을 重視하여 辨病에 “必先察六經之候”라 하였으며, 中風의 治療에서 六經을 나누어 針刺함이 중요하다고 主張하여, 『素問病機氣宜保命集·中風論』<sup>5)</sup>를 보면 다음과 같다.

太陽經中風の “中風無汗惡寒, 麻黃續命主之. 宜針太陽至陰出血, 崑崙陽蹻.”라 하였고, 또한 “中風有汗惡風, 桂枝續命主之. 宜針風府. 已上二證, 皆太陽中風

也.”<sup>6)</sup>라 하여, 無汗과 有汗을 區別하여 處方과 刺針을 달리 하였다.

陽明經中風에 “中風無汗, 身熱不惡寒, 白虎續命主之, 中風有汗, 身熱不惡風, 葛根續命主之”라 하고 “宜針陷谷, 刺厲兌. 針陷谷者, 去陽明之賊. 刺厲兌者, 瀉陽明經之實也.”<sup>7)</sup>라 하여 陽明經中風에 白虎續命을 主하고, 陷谷과 厲兌를 刺한다 하였다.

太陰經中風에 “中風無汗身涼, 附子續命主之. 宜刺隱白穴, 去太陰之賊也.”<sup>8)</sup>라 하여 太陰經中風の 無汗身涼한 證에 附子續命湯을 主하고 隱白을 刺한다 하였다.

少陰經中風에 “中風有汗無熱, 桂枝續命主之. 宜針太溪.”<sup>9)</sup>라 하여 少陰經中風에 太溪를 刺한다 하였다. 이 桂枝續命湯은 桂枝, 附子, 甘草로 構成되어 있고, 太陽中風の 桂枝續命湯은 桂枝, 芍藥, 杏仁으로 構成되어 있다.

少陽經, 厥陰經中風에 대해서 “中風六證混淆, 繫之於少陽厥陰, 或肢節攣痛, 或麻木不仁, 宜羌活連翹續命主之, 古之續命混淆, 無六經之別, 今各分經治療, 又分經針刺法. 厥陰之井大敦, 刺以通其經. 少陽之經絕骨, 灸以引其熱. 是鍼灸同象法, 治之大體也”라 하여 肢節攣痛의 少陽經中風에는 “厥陰之井大敦, 刺以通其經.”라 하여 少陽經中風은 厥陰의 大敦을 刺한다 하였다. 厥陰經中風の 麻木不仁에는 少陽之經絕骨을 “灸以引其熱.”이라 하여 厥陰經中風은 少陽經의 絕骨을 灸한다 하였다.

이와 같이 劉河間은 中風治療에 있어 그 症狀에 따라 外感中風을 六經으로 나누어 立方을 하면서 鍼灸治療는 各經을 따르거나 表裏가 되는 經의 穴을 針刺하였다. 이 中風分經治療의 內容은 『丹溪纂要·中風論』과 羅天益의 『衛生寶鑑·中風門』, 虞搏의 『醫學正傳』에서 丹溪治法이라 하여 引用하였다.

6) 大田大學校 제12기 졸업준비위원회. 病機氣宜保命集. 서울. 木과 土. 2000. p. 109.

7) 大田大學校 제12기 졸업준비위원회. 病機氣宜保命集. 서울. 木과 土. 2000. p. 109.

8) 大田大學校 제12기 졸업준비위원회. 病機氣宜保命集. 서울. 木과 土. 2000. p. 110.

9) 大田大學校 제12기 졸업준비위원회. 病機氣宜保命集. 서울. 木과 土. 2000. p. 111.

4) 張吉. 各家鍼灸醫籍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 71.

5) 大田大學校 제12기 졸업준비위원회. 病機氣宜保命集. 서울. 木과 土. 2000. p. 103.

2)心痛治療의 循經取穴法과 接經三法

劉完素는心痛治療에 대해『素問病機氣宜保命集·心痛論』에서‘接經三法’을提示하여心痛은腎,脾,胃,肝,肺 등에屬하여 같지 않다고 하였으며, 각각의 症狀을 밝혀 所屬 經脉을 나누는 후에 經을 따라 取穴하여 針刺治療 하였다.

『各家鍼灸醫籍選』에서는 이 循經取穴에 대하여 鍼灸治療에 중요한 意義가 있으니, 이로 인하여 鍼灸治療가 外治法이 되어 鍼灸로 榮衛氣血을 調節하고 補陰瀉陽하여 病所에 氣가 이르게 되어 效果가 있는 것이라 하였다<sup>10)</sup>. 또한 劉完素가 五臟穴應用을 重視하여 本書의心痛에 관련된 10餘種의 病症의 鍼灸治療中에 단지 30餘穴을 利用하였다. 그 利用한 穴의 多數는 井, 榮, 輸, 經, 合의 五臟穴이며, 특히 原穴을 매우 重視 하였으며, 後에 汪機가『鍼灸問答』에서 十二原穴로 五臟六腑의 病을 治療한다고 하였으니, 이는『靈樞·九針十二原論』의“凡此十二原者, 主治五臟六腑之有疾者”의 理論을 擴大하여 應用한 것이다<sup>11)</sup>.

이른바‘接經三法’은 첫째로 本經의 俞穴을 取하는 것이 있고, 둘째로 서로 表裏가 되는 俞穴을 取하며, 셋째로 相剋이 되는 經의 俞穴을 取한다(脾心痛에 腎經俞穴을 取하는 것). 五臟穴중에서 榮穴과 原穴을 多用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經脉氣血을 交接 運行하게 하여 通經接氣의 效能을 유도하는 것이다<sup>12)</sup>.

(1)心痛循經取穴法

그는“心痛, 腹脹, 嗇嗇然大便秘利, 取足太陰. 心痛, 引腰脊, 欲嘔, 取刺足少陰. 心痛, 引小腹滿, 上下無常處, 便溺難, 刺足厥陰. 心痛, 短氣, 刺手太陰. 心痛, 當九節刺之立已, 不已上下求之, 得之則已.”<sup>13)</sup>라 하여心痛의 症狀에 따라 所屬 經絡을 구분하여 治療하였다.

『靈樞·雜病』을 살펴보면“刺心痛諸穴於後”이하의“心痛, 腹脹, 嗇嗇然, 大便秘利, 取足太陰. 心痛, 引脊

不得息, 刺足少陰, 不已, 取手少陽. 心痛, 引小腹滿, 上下無常處, 便溺難, 刺足厥陰. 心痛, 且短氣不足以息, 刺手太陰. 心痛, 當九節刺之, 按, 已刺按之, 立已, 不已上下求之, 得之立已.”<sup>14)</sup>의 내용이 있어, 이를 보면 그가『靈樞·雜病』을 引用한 것으로『內經』의 鍼灸理論을 臨床에 利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心痛接經三法

그는“心痛, 與背相接<sup>15)</sup>, 善恐<sup>16)</sup> 如從后觸其心偃樓者, 腎心痛也, 先刺京骨, 崑崙, 不已<sup>17)</sup>, 刺合骨<sup>18)</sup>. 心痛, 腹脹, 胸滿, 心尤病者, 胃心痛也, 刺大都, 太白. 心痛, 如錐刺, 乃脾心痛也, 刺然谷, 太溪. 心痛, 蒼然如死狀, 終日不得休息, 乃肝心痛, 取行間, 太衝. 心痛, 臥若徒居, 心痛間, 動作益痛甚者, 其色不誠, 此肺心痛也, 刺魚際, 太淵以通氣行, 無所凝滯, 則病愈也.”<sup>19)</sup>라 하였다.

여기서 本經의 穴을 取한 경우는 腎心痛의 然谷, 肝心痛의 行間 太衝, 肺心痛의 魚際 太淵을 들 수 있고, 表裏經을 取한 경우는 腎心痛의 京骨 崑崙, 胃心痛의 大都 太白을 들 수 있고, 相克關係 經의 穴을 取한 경우는 脾心痛의 太溪 然谷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症狀에 따라 所屬臟腑를 나누어 그 經絡의 五臟穴과 관련 經絡의 五臟穴을 針刺하였다.

또한“太溪穴, 足少陰腎經土也, 爲膈, 在足內踝後, 跟骨上, 脉動陷中, 可灸三壯或五七壯, 此瀉熱厥心痛. 崑崙, 足太陽膀胱經水也, 在足外踝後, 跟骨上陷中, 可灸三壯, 或五七壯, 亦可瀉熱厥心痛.”<sup>20)</sup>이라 하였는데, 本文의“足太陽膀胱水也”에서‘水’는 崑崙穴이 經穴이므로 火가 맞다 하겠다. 이 文章의 要旨는 厥心痛에 太溪穴과 崑崙穴에 灸하여 瀉熱하는 灸法을 利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4) 楊維傑. 黃帝內經靈樞釋解. 서울. 一中社. 1991. p. 248.  
 15) “按”은『靈樞·厥病』에“控”으로 되어있다.  
 16) “恐”은『靈樞·厥病』에“瘕”로 되어있다.  
 17) “不已”는『靈樞·厥病』에“發狂不已”로 되어있는데『甲乙經』에“發針立已, 不已取然谷”이라 하였다.  
 18) “合骨”을『靈樞·厥病』에는“然谷”으로 되어있다.  
 19) 大田大學校 제12기 졸업준비위원회. 病機氣宜保命集. 서울. 木과 土. 2000. p. 222.  
 20) 大田大學校 제12기 졸업준비위원회. 病機氣宜保命集. 서울. 木과 土. 2000. p. 222.

그리고 寒熱格拒證에는 “引熱下行”의 法을 利用하였는데, “熱厥心痛, 身熱足寒 痛甚則煩躁而吐 額自汗出, 知爲熱也. 其脈洪大. 當灸太溪及崑崙, 謂表裏俱瀉之, 是爲熱病汗不出, 引熱下行, 表汗通身而出者, 愈也.”<sup>21)</sup>라 하였다. 이는 上에는 陽熱이 있고, 下로 陰寒이 있는 一種의 陰寒格拒로, 陽熱上出의 病症이다. 이 경우 足上의 穴位에 灸하여 引陽熱下行시켜 陰寒을 除去함으로써 陰陽을 交通시켜 格拒를 解消한 것이다<sup>22)</sup>. 이처럼 心痛治療에 있어 針法과 함께 灸法도 說明하였다.

『靈樞·厥病』에 “心痛, 與背相控, 善瘦, 如從后觸其心 僂者, 腎心痛也, 先取京骨, 崑崙, 發狂不已<sup>23)</sup>, 取然谷. 厥心痛, 腹脹, 胸滿, 心尤痛甚, 胃心痛也, 刺大都, 太白. 厥心痛, 痛如錐刺其心, 心痛甚者, 脾心痛也, 取之然谷, 太溪. 厥心痛, 色蒼蒼如死狀, 終日不得太息, 肝心痛也, 取之行間, 太衝. 厥心痛, 臥若徒居, 心痛間, 動作痛益甚者, 色不變, 肺心痛也, 取之魚際, 太淵.”<sup>24)</sup>의 內容이 있다. 이를 보면 ‘心痛接經三法’은 여기서 引用하였다고 볼 수 있고<sup>25)</sup>, 張元素의 『潔古雲岐針法』에서도 같은 內容이 記載되어 있어, 劉完素의 心痛의 接經三法은 『內經』의 厥心痛의 鍼灸治療法을 따랐다고 할 수 있으며, 張元素에게도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痛症治療의 分經取原穴法

河間은 痛症의 治療에 대해 『素問病機氣宜保命集·藥略·流注針法』에서 “心痛, 脈沈, 取腎經原穴. 脈弦, 取肝經原穴. 脈澁, 取肺經原穴. 脈浮, 取心經原穴. 脈緩, 取脾經原穴. 腰痛, 痛在身之前, 取足陽明原穴(衝陽). 痛在身之後, 取足太陽原穴(京骨). 痛在身之側, 取足少陽原穴(丘墟).”<sup>26)</sup>라 하여, 劉完素는 心痛을 治療

함에 있어 脈을 기준으로 經脈所屬을 分辨하여 해당 經의 原穴을 取하여 治療하였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五臟의 原穴을 取한다는 內容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原穴은 六腑에만 존재하고 五臟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原穴은 表裏가 되는 經絡의 原穴을 取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지만, 汪機의 『鍼灸問答』에 臟의 俞와 腑의 原은 모두 三焦의 原氣가 行하고 머무르는 곳이라 하여 이를 原이라 하며 十二原穴이 五臟病을 治療한다고<sup>27)</sup>한 文章을 들어 이는 五臟의 俞穴과 六腑의 原穴을 指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原穴을 取하여 治療하는 것을 通經接氣라 하는 것이다.

이러한 取穴法에 대하여 張氏는 通經接氣法은 劉完素가 倡導하였다고 하였으나, 劉完素의 이와 같은 取穴法은 『靈樞·厥病』의 五種心痛에 表裏經의 原穴과 經穴을 取하여 經氣를 暢通하고 陰陽을 調和하여 接通經氣한다는 內容을 繼承한 것이다. 後에 張潔古가 『雲岐子論迎隨補瀉法』에 ‘接經法’으로 引用하였다. 雲岐子는 五臟穴을 常用하였는데, 그중 原穴 應用이 비교적 많으니 이는 原氣를 重視하였다고 하여<sup>28)</sup>, 接經法이 張元素에게 影響을 주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劉完素는 『內經』의 鍼灸理論을 臨床에 利用하여 寒涼派의 特徵에 따라 針法만 아니라 灸法을 熱厥心痛 등에 瀉熱하는 方法으로 使用하였고, 取穴에서는 接經三法과 分經取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各經의 原穴과 五臟穴을 중요시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瘡瘍治療의 鍼灸四法

劉完素는 灸法에 ‘引熱外出’과 ‘引熱下行’의 作用이 있어 熱症에 灸를 使用한다고 主張하였다. 그러므로 實熱症에 一般的으로 ‘引熱外出’의 法을 使用하여 “瘡瘍已覺微滿腫硬, 皮血不變色, 脈沈不痛者, 當外灸之, 引邪氣出而方之.”<sup>29)</sup>라 하였다. 또한 그는 “瘡瘍

21) 大田大學校 제12기 졸업준비위원회. 病機氣宜保命集. 서울. 木과 土. 2000. p. 218.

22) 魏稼. 各家鍼灸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p. 47.

23) “不已”는 『靈樞·厥病』에 “發狂不已”로 되어있는데 『甲乙經』에 “發針立已, 不已取然谷”이라 하였다.

24) 楊維傑. 黃帝內經靈樞釋解. 서울. 一中社. 1991. p. 237.

25) 大田大學校 제12기 졸업준비위원회. 病機氣宜保命集. 서울. 木과 土. 2000. p. 222.

26) 大田大學校 제12기 졸업준비위원회. 病機氣宜保命集. 서울.

울. 木과 土. 2000. p. 332.

27) 高尔鑫. 王石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學出版社. 1999. p. 310.

28) 張吉. 各家鍼灸醫籍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 103.

29) 大田大學校 제12기 졸업준비위원회. 病機氣宜保命集. 서울.

者, 火之屬”<sup>30)</sup>이므로 ‘引邪氣出’<sup>31)</sup>이라 하여 마땅히 火熱之邪를 유도하여 排出시켜야한다고 하였다.

劉河間은 瘡瘍의 鍼灸治療穴位 選擇에 있어, 部位에 따른 循經取穴과 脈象에 따른 取穴, 瘡瘍의 色에 따른 五臟穴, 化膿에 따른 鍼灸治療를 區別하여 각기 4가지로 나누어 分辨하여 治療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瘡瘍이 發하는 部位 : 瘡瘍이 發하는 部位가 다른 것을 따라 循經取穴함에 있어, “凡瘡瘍可灸刺者, 順分經絡, 部分血氣多少, 俞穴遠近. 若從背而出者, 當從太陽五穴(卽至陰, 通谷, 束骨, 崑崙, 委中)隨症選用, 或刺或灸, 泄其邪氣. 從髀而出者, 當從少陽五穴選用(卽竅陰, 俠溪, 臨泣, 陽輔, 陽陵). 從髀而出者, 當從陽明五穴選用(卽厲兌, 內庭, 陷谷, 衝陽, 解溪). 從腦而出者, 當灸刺絕骨, 以泄邪氣.”<sup>32)</sup>라 하여 모든 瘡瘍灸刺하는 것에 마땅히 經絡部分과 血氣多少, 俞穴遠近을 나누어 治療하는 것을 주장하여 瘡瘍이 發하는 部位가 다른 것을 따라 循經取穴하였다. 이와 같이 瘡이 發하는 部位에 따라 太陽經과 少陽經, 陽明經으로 나누어 그 部分에 屬하는 各經絡의 穴을 取하여 鍼灸治療 하였다.

(2) 脈象을 따름 : 患者의 脈象이 不同함을 따라 循經取穴하였으니, “脈浮者從太陽經, 依前選用, 脈長者從陽明經, 依前選用, 脈弦者從少陽經, 依前選用.”<sup>33)</sup>이라 하여, 浮, 長, 弦하는 脈에 따라 各各 屬하는 太陽, 陽明, 少陽經의 穴을 取하여 治療하였다.

(3) 瘡瘍色澤 : 瘡瘍色澤을 따라 井榮俞經合五俞穴을 分別取穴하였다. “諸經各有井榮俞經合, 井主心下滿及瘡色青, 榮主身熱及瘡赤色, 俞主體重節痛瘡黃

色, 經主咳嗽寒熱瘡白色, 合主氣逆而泄瘡黑色, 隨經病而有此症者, 或宜灸宜針, 以泄邪氣”<sup>34)</sup>라 하여, 各經絡을 따라 이런 症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刺鍼을 하거나 뜸을 떠서 邪氣를 排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여 各 五臟穴의 主治症과 色에 따라 取穴하여 鍼灸治療한다 하였다.

(4) 瘡瘍症의 陰陽과 化膿與否 : 瘡瘍症의 陰陽과 化膿與否에 따라 針 또는 灸사용을 分別하였다. 그는 “凡瘡瘍, 已覺微滿腫硬, 皮肉不變色, 脈沈不痛者, 當外灸之, 引邪氣出而方止. 如已有膿水者, 不可灸, 當刺之. 淺者亦不灸, 「經」曰 陷下則灸之, 如外微覺木硬而不痛者, 當急灸之, 是邪氣深陷也, 淺者不可灸, 慎之.”<sup>35)</sup>라 하였다. 이는 그가 瘡病에 있어 『內經』의 ‘陷下則灸之’의 原則을 따라 治療하였으며, 또한 이미 膿水가 있는 者와 淺者는 灸가 不可하고 針刺가 可하다 하여 可灸와 不可灸에 대하여 위와 같이 分別하였다.

#### 4) 大刺八關法

劉河間의 『素問病機氣宜保命集·針之最要』에 ‘大刺八關法’이 記載되어있으며, 『藥略』에서 “大煩熱, 晝夜不息, 刺十指間出血, 謂之八關大刺. 目疾睛痛欲出, 亦大刺八關.”<sup>36)</sup>이라 하여 八關大刺로 泄熱하고 砭射放血驅邪한다고 하였다.

‘大刺八關’의 ‘八關’에 대하여 『各家鍼灸醫籍選』에서는 八關大刺는 手五指間이니, 즉 손의 八邪穴을 刺鍼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sup>37)</sup>, 또한 八關穴은 奇穴로 五指間의 縫紋隙間이라고도 하였고<sup>38)</sup>, 『古今鍼灸治療精華』에서는 대체적으로 十指의 사이를 指稱하며 이는 現在의 八風穴에 해당하고 ‘大刺’는 針刺出血을 말하는 것으로 따라서 ‘大刺八關’은 일종의 刺血療法

울. 木과 土. 2000. p. 273.

30) 大田大學校 제12기 졸업준비위원회. 病機氣宜保命集. 서울. 木과 土. 2000. p. 270.

31) 大田大學校 제12기 졸업준비위원회. 病機氣宜保命集. 서울. 木과 土. 2000. p. 273.

32) 大田大學校 제12기 졸업준비위원회. 病機氣宜保命集. 서울. 木과 土. 2000. p. 272.

33) 大田大學校 제12기 졸업준비위원회. 病機氣宜保命集. 서울. 木과 土. 2000. p. 272.

34) 大田大學校 제12기 졸업준비위원회. 病機氣宜保命集. 서울. 木과 土. 2000. p. 272.

35) 大田大學校 제12기 졸업준비위원회. 病機氣宜保命集. 서울. 木과 土. 2000. p. 273.

36) 大田大學校 제12기 졸업준비위원회. 病機氣宜保命集. 서울. 木과 土. 2000. p. 333.

37) 張吉. 各家鍼灸醫籍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 72.

38) 張吉. 各家鍼灸醫籍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 103.

이며, 十指間을 刺하여 出血시켜 邪熱을 泄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sup>39)</sup>, 『針刺手法百家集成』에서는 八關은 十指間으로 (八風穴에 해당) 大刺는, 즉 針刺出血이라 하였다<sup>40)</sup>. 또한 『素問·刺癰』에서 “足陽明十指間”이라 하여 八風穴이라고 하였다<sup>41)</sup>. 『各家鍼灸醫籍選』에서는 이에 八關部位는 歷代로 일치하지 않는다 하였지만<sup>42)</sup>, 이상에서 살펴보면 八關穴은 奇穴로써 手十指間의 八邪穴과 足十指間의 八風穴을 指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大刺는 모두 針刺出血을 意味한다고 하여 일치하고 있다.

즉 大刺八關法은 一種의 出血療法으로 瀉熱시키는 것으로, 實熱症의 治療方法이다. 이에 대한 內容을 더 살펴보면, 『素問·刺癰論』의 “諸虐而脉不見, 刺十指間出血, 血去必已”라 하여 十指間을 刺하여 癰疾을 治療하였고<sup>43)</sup>, 『各家鍼灸醫籍選』에서는 『濟生拔萃』에서 劉完素와 同時代人인 張元素의 學을 繼承하고 그의 子인 張璧이 著述한 『潔古雲岐針法』에도 八關大刺法이 있고 『醫經小學』에 “八邪八穴 手十指, 岐縫中是.”이라 하여 “治病痺”라 하였으며 後世에 八邪라 稱한다 하였고, 張潔古는 八關刺出血로 急病을 治療하였는데, 雲岐子가 潔古刺痛諸法中에 “大煩熱不止. 晝夜無度, 刺十指間出血, 謂八關大刺”<sup>44)</sup>라 引用하면서, 臨床에 應用하여 手臂腫痛, 手指麻木과 頭面, 牙齒, 目痛, 咽喉等症에 效果가 있다고 하였다<sup>45)</sup>.

『各家鍼灸學說』에서는 張子和의 『儒門事親·癰非脾寒及鬼神辨』에도 “會陳下有病癰二年不愈, 正當發時, 余刺其十指出血, 血止而寒熱立止, 咸駭其神”<sup>46)</sup>이

라 하여 八關을 刺하여 出血하여 熱癰을 治療하는 醫案이 있으며, 張景岳의 『景岳全書』의 目病에서 “八關大刺 治眼痛欲出, 不可忍者, 順刺十指縫中出血愈.”<sup>47)</sup>라 하여 八關泄熱의 說明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瘡瘍治療에 “砭射之”, “石而泄之”라 하여 瀉血療法을 비교적 많이 사용하였다고 하였다<sup>48)</sup>. 劉河間은 刺血療法을 이용하여 疾病을 治療하였고 이 大刺八關法은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大刺八關은 “腰痛不可忍, 針崑崙及刺委中出血.”<sup>49)</sup>이라 하여 崑崙과 委中穴을 刺하여 出血시켜 腰痛을 治療하고, “熱無度, 不可忍, 刺陷骨穴出血”이라 하여 陷骨穴을 刺하여 出血시켜 發熱無度を 治療하였고, “骨熱不可治, 前板治乾燥, 當灸骨會大椎.”라 하여 骨熱로 門齒乾燥함에 大椎를 灸하였으며, “百節疼痛, 實無所知, 三稜針刺絕骨出血.”이라고 하여 絕骨穴을 出血시켜 百節疼痛을 治療하였는데, 이는 八關만 아니라 다른 穴들도 刺絡出血하여 여러 病證에 活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大刺八關法은 出血을 시킴으로써 泄熱시키고자 하는 目的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劉完素는 泄熱의 方法에 있어 大刺八關法만을 고수하지 않고, 井穴과 原穴의 刺針을 통해서 清熱시키는 方法도 고려하였으니, 이를 보면 廣義의 大刺八關法은 十指間과 手足井穴, 手足部位의 俞穴까지 針刺하여 泄血로 혹은 瀉法으로 清熱瀉火의 目的을 到達하는 것이다<sup>50)</sup>. 이와 같이 刺絡療法을 使用하여 瘀血과 清熱瀉火하는 것은 鍼灸治療中에 있어 瀉火派의 思想에 따른 것으로 實熱症에 瀉血療法을 善用함은 寒涼藥物의 瀉火派의 思想과 一致한다.

또한 劉完素는 『素問病機氣宜保命集』에서 20餘種의 病症에 鍼灸治療를 하였으나 選穴은 30여개이니 그중 多數는 五臟穴이며 더욱이 三陽經의 五臟穴이 많다. 그중 井穴과 原穴의 應用을 重視하였는데, 이

39) 陳克正. 古今鍼灸治驗精華.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3. p. 94.  
40) 陸壽康. 針刺手法百家集成.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8. p. 404.  
41) 王德深. 中國鍼灸穴位通鑿. 青島. 青島出版社. 1994. p. 1842.  
42) 張吉. 各家鍼灸醫籍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 72.  
43) 魏稼. 各家鍼灸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p. 47.  
44) 黃龍祥.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6. p. 392.  
45) 張吉. 各家鍼灸醫籍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 103.  
46) 儒門事親校註. 張從正. 河南.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4. p. 44.

47) 張介賓. 景岳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 326.  
48) 魏稼. 各家鍼灸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p. 47.  
49) 大田大學校 제12기 졸업준비위원회. 病機氣宜保命集. 서울. 木과 土. 2000. p. 333.  
50) 張吉. 各家鍼灸醫籍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 72.

는 그가 『素問·繆刺論』에 各經의 井穴을 이용한 病證 治療를 根據로 發揮하여 井穴을 應用하였으며, 또한, 하나의 病症에 대하여 여러 症候를 根據로 그 所屬經 脉을 判斷하여 해당 原穴을 治療하는 方法으로 『靈樞』, 『難經』에 根據하여 論述하였다. 『各家鍼灸學說』에서는 이 取穴法이 후에 易水學派인 元代 王海藏의 ‘撥原法’에 影響을 주었다 하여<sup>51)</sup>, 劉完素의 原穴을 이용한 針刺治療가 撥原法의 始初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劉完素는 鍼灸方面에 있어 經絡辨證을 爲主로 하여 火熱論의 學說에 따라 針法에 八關大刺, 灸法에 引瀉熱邪의 方法을 利用하여 降火의 目的을 추구하였다. 取穴에 있어서는 비교적 五臟穴을 利用하여 治療의 主要穴로 使用하였으며, 井榮輸原穴의 4穴을 重視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各家鍼灸學說』에서는 五行屬性上, 井은 木에, 榮은 火에, 輸는 土에, 原은 三焦元氣와 밀접한 關係가 있어(陰經은 輸로 原을 代用) 木土와 火는 母子相生의 關係로 清熱瀉火의 能力을 強調하였으니, 이는 劉完素의 瀉火의 學術思想과 一致한다고 하였는데<sup>52)</sup>, 意義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考察한 것에서 보듯이 八關大刺法은 八關과 더불어 十二經의 井穴과 原穴 그리고 委中, 骨會인 大椎, 髓會인 絕骨을 더하여 清熱瀉火의 目的으로 使用하였으니, 이는 寒涼藥物을 善用한 瀉火派思想과 一致하며, 『內經』을 根本하여 鍼灸治療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張從正의 鍼灸治療法

張從正은 『內經』, 『難經』, 『傷寒論』을 많이 研究하였고 특히 劉完素의 理論을 私淑하여 ‘六氣論’과 ‘主火論’에 크게 影響을 받아 寒涼藥을 善用하였다.

張從正은 針藥 兼施의 醫家로 『儒門事親』중 鍼灸治療가 많이 記載되어 있고, 또한 經絡辨證論治를 重視하였으며, 放血療法을 多用하여 金代의 放血療法의

代表가 되었다<sup>53)</sup>.

張從正은 『內經』의 鍼灸古法을 運用하였으니 이는 그의 鍼灸法의 최대 特徵이다<sup>54)</sup>. 예로 『儒門事親·癰非脾寒及鬼神辨』에서 『素問·刺癰論』을 根據로 “會陳下有病癰二年不愈, 正當發時, 余刺其十指出血, 血止而寒熱立止, 咸駭其神”<sup>55)</sup>이라 하였으며, 銚針을 使用할 때 前人의 治療範圍를 뛰어 넘어 外科의 方面에서 舌腫 喉閉, 背疽, 瘰癧, 赤瘰, 丹毒의 諸症을 治療하고, 內科 方面에서는 銚針으로 風搐, 雷頭風, 腎風面黑, 等症을 治療하여 좋은 效果를 거두었다<sup>56)</sup>.

그는 攻邪가 爲主이기 때문에, 灸法에 있어서 慎重하여 『儒門事親·論火熱二門』에서 “凡醫人不明發表攻里, 亂投湯劑, 有誤性命. 更大忌夏月燔灸中脘, 臍下, 關元, 氣海, 背俞等. 燔灸千百壯者, 全無一效, 使病者反受其殃, 豈不痛哉”<sup>57)</sup>라 하여 灸함에 慎重하라 하였으며, 灸熏 등의 法은 解表의 法에 屬하여 發汗疏風의 作用이 있다고 하였다<sup>58)</sup>.

여기서는 張從正의 鍼灸治療를 刺絡出血療法인 放血療法과 經絡의 穴을 刺針하는 循經取穴과 灸法治療에 해당하는 兼用灸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放血療法

張從正은 銚針으로 攻疾하는 治療法을 많이 活用하였다. 銚針은 鉞針으로 『靈樞』에서 말하는 九針의 하나이며, 『靈樞』에는 “鉞針者 末如劍鋒 以取大膿”<sup>59)</sup>이라고 記錄되어 있다. 이러한 針法은 外科의 膿毒을 靛고 瘀血을 除去하고 硬結을 清散시키며 經絡을 通暢시키는데 쓰여 지고 있는데, 그는 汗法의 一種으로 出血療法을 善用하였다.

『內經』에 “血實宜決之”라 하여 血이 비록 全身에

51) 魏稼. 各家鍼灸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p. 47.

52) 魏稼. 各家鍼灸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p. 48.

53) 陳克正. 古今鍼灸治驗精華.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3. p. 98.

54) 郭世余. 中國鍼灸史. 서울. 의성당. 1994. p. 204.

55) 儒門事親校註. 張從正. 河南.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4. p. 44.

56) 宋隆燮. 張從正의 生涯와 醫學思想. 慶熙大學校 大學院. 1986. p. 24.

57) 儒門事親校註. 張從正. 河南.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4. p. 540.

58) 張吉. 各家鍼灸醫籍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 75.

59) 楊維傑. 黃帝內經靈樞釋解. 서울. 一中社. 1991. p. 8.

營養을 供給하나 血熱하여 壅滯하면 오히려 病이 되니, 이러한 때 出血을 시키면 邪熱이 清하게 되고 血行이 자연이 순조롭게 된다 하였다<sup>60</sup>). 그리하여 그는 “出血者 乃所以養血”<sup>61</sup>), “出血與發汗 名雖異而實同”<sup>62</sup>)이라 하였으며, 出血은 發汗보다 效果가 더욱 신속하여 發汗으로 治療하지 못하는 疾病을 治療할 수 있다 하였다. 주로 上部에 血行이 壅滯되어 熱에 屬하는 疾病 즉 目暴赤腫 咽喉痺 重舌木舌 頭風 頭痛 腰脊強 年少發早白洛或白屑等症이나 肝經血熱이 壅滯되어 생긴 陰囊燥痒症 등에 出血療法을 사용한다 하였다<sup>63</sup>).

또한 그가 사용한 砭射法은 針刺法의 初級段階가 되며, 鍼灸治療가 있는 이후부터 砭射法은 民間에 광범위하게 퍼져 사용되었던 것으로, 『儒門事親·治病百法』에서 보면 小兒赤瘤丹腫에 “小兒赤瘤丹腫, 走引遍身, 邪熱之毒, 在于皮膚, 用磁片鋒砭出紫血則愈”<sup>64</sup>)라 하여 小兒赤瘤丹腫이 遍身に 走하여 邪熱의 毒이 皮膚에 在하니 磁片鋒砭을 사용하여 紫血을 出하면 愈한다고 하였으며, 이외에도 여러 病症에 사용하였다.

張從正은 攻下派醫家로 鍼灸治療중에도 攻邪의 특징이 있어 『內經』의 刺絡瀉血의 基礎위에 放血療法을 대단히 發展시켜 明代 刺絡出血療法의 復興에 대하여 先驅의인 作用을 하였다<sup>65</sup>).

『儒門事親』에 記載되어있는 放血療法에는 아래와 같이 4가지 方面의 效能이 있다.

(1) 發汗解表

張子和는 『儒門事親·目疾頭風出血取急說八』에 說하길 “以其血在表, 故宜汗. 以其火在上, 故宜吐. 以其熱在中, 故宜下. 出血之與發汗, 名雖異而實同.”<sup>66</sup>)이라

하여 目疾은 火熱에 의해서 生하니 血을 따라 火熱의 邪가 出하여 去하게 하는 放血療法을 發汗法의 하나로 利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清熱消腫

張子和는 目疾에 있어 『儒門事親·目疾頭風出血最急說八』에 “治火之法, 在藥則鹹寒, 吐之下之. 在針則神庭, 上星, 腦會, 前頂, 百會.”라 하였고, 또한 “至于暴赤腫痛, 皆宜以銚針刺前五穴出血而已.”<sup>67</sup>)라 하여 目暴赤腫痛을 治함에 銚針을 사용하여 神庭, 上星, 腦會, 前頂, 百會五穴을 刺하였고, 또한 說하기를, “其前五穴, 非走治目疾, 至于頭痛, 腰脊強, 外腎囊燥痒, 出血皆愈, 凡針此勿深, 深則傷骨”이라 하여 깊이 刺針하지 말라고 하였고, 또한 目盲을 治함에 “此相火也, 太陽陽明氣血俱盛. 乃刺其鼻中, 攢竹穴與 頂前五穴, 大出血, 目立明”<sup>68</sup>)이라 하여 攢竹과 頂前 五穴을 刺하여 大出血하였다.

舌腫을 治함에 “血實者 以銚針磨令鋒極尖, 輕砭之一砭八九次, 血出約一二盞, 如此者三次, 漸而血少痛減腫消. 夫舌者, 心之外候, 心主血 故血出則愈.”<sup>69</sup>)라 하여 舌腫의 症은 七情鬱結에 속하며 心火가 暴至하여 痰濁瘀血이 舌에 壅滯되어 生成하니 外治로 刺해서 惡血을 去한다고 하여 銚針輕砭을 利用하여 出血하였다.

喉痺腫痛을 治함에 “喉閉腫痛不能語, 微刺兩手大拇之去爪甲如韭葉, 是少商穴. 少商是 肺經之井穴也, 以銚針刺血出立愈, 如不愈, 以溫白湯口中含漱, 是以熱導熱也.”라 하여 清咽利膈의 意味로<sup>70</sup>), 少商을 刺하여 出血하였으며, 腦頭風(赤腫結核 혹은 面熱無汗)을 治함에 銚針을 이용하여 出血시켰고, 小兒面上赤腫을 治함에 “銚針刺輕砭之. 除兩目尖外, 亂刺數十針, 出血三次乃愈.”<sup>71</sup>)라 하여 銚針으로 수십 針을 亂刺하

60) 송철호, 홍원식, 김광호. 金元四大家에 관한 研究. 慶熙韓醫大論文集 Vol. 9. 1986. p. 59.

61) 儒門事親校註. 張從正. 河南.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4. p. 67.

62) 儒門事親校註. 張從正. 河南.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4. p. 70.

63) 송철호, 홍원식, 김광호. 金元四大家에 관한 研究. 慶熙韓醫大論文集 Vol. 9. 1986. p. 59.

64) 儒門事親校註. 張從正. 河南.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4. p. 293.

65) 郭世余. 中國鍼灸史. 서울. 의성당. 1994. p. 204.

66) 儒門事親校註. 張從正. 河南.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4.

p. 70.

67) 儒門事親校註. 張從正. 河南.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4. p. 67.

68) 儒門事親校註. 張從正. 河南.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4. p. 338.

69) 儒門事親校註. 張從正. 河南.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4. p. 331.

70) 儒門事親校註. 張從正. 河南.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4. p. 260.

여 出血시켰다.

赤瘤丹腫을 治함에 “夫小兒有赤瘤丹腫, 先用牛黃通膈丸瀉之, 后用陽起石掃傳, 則丹毒自散. 如未散, 則可用銚針砭刺出血而愈矣.”<sup>72)</sup>라 하여 大熱의 毒이 鬱結된 小兒丹毒을 清熱攻下の 藥으로 治하고, 다시 銚針으로 砭刺해서 出血하여 治療하니 “實者瀉之”, “熱者寒之”의 治療法이라 하였다.

瘡瘍에 있어서 背瘡을 治함에 “凡背瘡初發, 便可用藏用丸, 玉燭散, 大作劑科, 下臟腑一, 二十行. 次用銚針于腫焮處, 循紅暈周匝內, 密刺三層, 出血盡, 以溫軟帛拭去血. 甚者, 百會, 委中皆出.”<sup>73)</sup>이라 하여 背瘡이 初發하였을때 藏用丸과 玉燭散을 用하고 銚針으로 腫焮處와 紅暈周匝內를 따라 密刺하여 出血이 다 하면 溫軟帛로 血을 닦아 去血하고 甚한 者는 百會와 委中을 모두 出한다 하여 銚針을 用해서 刺하여 出血시켜 治療하였다. 背項瘰癧을 治함에 “太陽穴有餘也, 先令湧泄之, 次于委中以銚針出紫血, 病更不復作也”라 하였으며, 太陽은 多血少氣의 經으로 瘰癧이 發하는 것은 肺熱脾濕, 또는 夏月風熱毒邪가 肌腠에 搏하여 生하니 治法은 마땅히 清熱涼血의 法으로 委中穴을 銚針하였다<sup>74)</sup>.

瘡疾發作時 治함에 十指를 刺하여 出血한다 하였고, 濕癬을 治함에 “當以痒時, 于癬上各刺百餘針.”<sup>75)</sup>라 하여 針刺出血로 瀉熱燥濕祛風하니 마땅히 가려울 때 백여 針을 刺하여 出血하였고, 疥瘡(手背에 있는 瘡)를 治療함에 “以銚針十字刺破, 按出黃膠膿三兩匙, 立平.”<sup>76)</sup>이라 하여 銚針으로 十字로 刺하여 破해 黃膠膿을 出하여 治療하였다.

그리고 木舌脹 治療에 대해서는 『儒門事親·喉舌緩急砭藥不同解』에서 “昔余以治一婦人木舌脹, 其舌漫

口, 諸藥不愈, 余以銚針小而銳者, 砭之五七度, 腫減, 三日方平. 計所出血, 几至盈斗.”<sup>77)</sup>라 하였는데, 이에 『古今鍼灸治驗精華』에서는 舌腫脹은 火盛으로 因하니 張從正은 局部의 放血療法을 使用하여 清熱消腫하여 效果를 거두었다고 하였다<sup>78)</sup>.

또한 火熱血實에 治法은 마땅히 刺絡해야 하니, 『儒門事親·瘡非脾寒及鬼神辨』에 “會陳下有病瘡二年不愈者 腹溫熱之劑, 漸至衰羸, 命予藥之, 余見其羸, 亦不敢便投寒涼之劑, 乃取內經刺瘡論詳之, 曰, 諸瘡不已, 刺十指間出血, 正當發時 余刺其十指出血, 血止而寒熱立止.”<sup>79)</sup>라 하였다. 『各家鍼灸學說』에서는 이 病情에 먼저 다른 醫가 脾寒의 瘡疾이라 하여 溫熱藥의 大劑를 사용한 結果로 그가 內熱猖盛하여 不去內熱하면 瘡을 除하지 못하니 發作時에 施術하였다<sup>80)</sup>. 이렇듯 熱症에 使用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目病에는 神庭, 上星, 腦會, 前頂, 百會 五穴을 刺絡하고 喉痺에는 少商을 刺絡하고, 癰癩, 發背, 瘰癧 등에는 委中과 百會, 그리고 腫處를 刺絡하였는데, 이러한 疾病은 火熱로 因한 것이므로 무릇 이 穴들과 腫處를 放血함으로써 清熱消腫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疏通經絡

張子和는 卒疝暴痛에는 大敦穴을 瀉하여 治療한다 하였고, 風搐反張을 治함에 “銚針刺百會穴, 出血二杯愈”<sup>81)</sup>라 하여 銚針으로 百會를 出血시키는 刺針法을 利用하였으며<sup>82)</sup>, 雀目, 瘡疾, 風搐反張, 疝痛 등에 대하여 所屬經氣 不通者는 所屬經絡에 依據하여 放血하여 經絡을 疏通시켜 治病의 目的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1) 儒門事親校註. 張從正. 河南.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4. p. 346.  
72) 儒門事親校註. 張從正. 河南.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4. p. 304.  
73) 儒門事親校註. 張從正. 河南.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4. p. 562.  
74) 儒門事親校註. 張從正. 河南.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4. p. 368.  
75) 儒門事親校註. 張從正. 河南.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4. p. 385.  
76) 儒門事親校註. 張從正. 河南.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4. p. 442.

77) 儒門事親校註. 張從正. 河南.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4. p. 157.  
78) 陳克正. 古今鍼灸治驗精華.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3. p. 100.  
79) 儒門事親校註. 張從正. 河南.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4. p. 44.  
80) 魏稼. 各家鍼灸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p. 58.  
81) 儒門事親校註. 張從正. 河南.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4. p. 309.  
82) 趙均善. 張從正의 中風論에 관한 考察. 大韓韓方內科學會 紙 제18권. 1997. p. 266.

(4) 祛瘀生新

張子和는 도리어 出血로 因하여 養血이 可하다 하였다. 그는 『儒門事親·目疾頭風出血最急說八』에서 “年衰火勝之人, 最宜出血, 但人情見出血, 皆不快矣. 豈知出血者, 乃所以養血也.”<sup>83)</sup>라 하여 刺絡出血을 하여 瘀血을 出血시킴으로써 養血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儒門事親』에서 目赤腫痛, 頭風, 腎風, 舌腫, 卒疝暴痛, 目盲, 癩疾, 風搖反張, 暑病, 肢瘤, 雷頭風, 喉閉腫痛, 癰癤, 發背, 瘡瘡, 濕癬 등 症에 對하여 放血療法을 紹介하였다. 이렇듯 그는 刺絡出血療法을 發汗解表, 清熱消腫, 疏通經絡, 祛瘀生新는 目的으로 여러 病症에 廣範圍하게 使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放血療法의 特徵

① 效果가 迅速함 : 그는 또한 放血療法의 效果에 대해서도 『儒門事親·喉舌緩急砭藥不同解』에서 “銅人中亦有灸法, 然痛微者可用, 病速者恐遲者殺人. 故治喉痺之火, 與救火同, 不容少待”<sup>84)</sup>라 하여 喉痺治療에 있어 放血療法의 效果가 迅速함을 말하였다<sup>85)</sup>.

② 放血療法의 4가지 特徵 : 張子和의 放血療法에는 鍼針을 많이 사용하였고, 針刺數도 많으며, 放血部位도 많고, 出血量이 많은 4가지 特徵이 있는데, 이는 그가 위와 같이 여러 病症에 鍼針을 많이 運用하였으며, 針刺數도 많아서 小兒面上赤腫을 治함에 “除兩目尖外, 亂刺數十針.”라 하였고, “當以痒時, 于癰上各刺百餘針”이라 하여 數十針을 刺하였다. 또한 放血部位가 많아 小兒面上赤腫을 治함에 “銚針刺輕砭之. 除兩目尖外, 亂刺數十針, 出血三次乃愈.”라 하여 수십 군데를 刺鍼하고 많은 양의 피를 瀉血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刺絡出血時에 一般적으로 止血方法을 사용하지 않고 血이 紫黑色의 血이 다하여 正常으로 變하면 멈춘다 하였다. 그는 體內的 惡血이 病의 邪가 되어

血하면 泄邪하니 모두 出하게 하면 邪祛正安한다 하였다.

③ 放血療法에 慎重 : 張從正은 各 病症의 治療에 있어 放血療法을 광범위하게 使用했지만, 放血療法을 使用함에 一定의 適應症이 있으니 반드시 實證과 熱症을 따라 放血을 한다 하였다. 그는 虛寒症에는 放血療法은 마땅치 않으며 이는 禁忌에 屬하고 어기면 結果가 不良하다 하였다. 이에 대하여 『古今鍼灸治驗精華』와 『各家鍼灸醫籍選』에서는 『儒門事親·服藥一差轉成他病誠』의 “如人因內肭膝膈肘腕大痛, 醫者不察, 使用鉞針出血, 如未愈者, 再三刺出血, 血出既多, 遂成跛躄.”<sup>86)</sup>을 引用하여 張從正이 病情과 適應症을 根據로 瀉血해야 하고 盲目的으로 瀉血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瀉血에 慎重하였다고 보여 진다<sup>87)</sup>,<sup>88)</sup>.

그래서 張從正이 放血을 함에 經脉氣血多少를 分別하여 可함과 不可함을 說하여 太陽, 陽明經은 血多하여 放血이 可하고, 少陽, 厥陰經은 血少하니 放血이 不宜하다 하여 臨床에서 이를 適用하였다. 즉 『儒門事親·目疾頭風出血最急說八』에서 “血太過者, 太陽陽明之實也, 血不及者 厥陰之虛也. 故出血者 太陽陽明, 蓋此二經血多故也, 少陽一經不宜出血, 血少故也. 刺太陽, 陽明出血則目愈明, 刺少陽出血則目愈昏.”<sup>89)</sup>이라 하여 陽明을 出血하면 눈이 밝아지고, 少陽을 刺하여 出血하면 어두워진다고 하였다. 또한 “小兒不可刺百會, 爲肉分淺薄, 恐傷其骨”이라 하여 小兒는 百會를 刺함이 不可하니 이는 肉分이 淺薄하여 그 骨을 傷할까 두렵다 하였다. 그리고 腰勝脇痛, 杖瘡, 落馬, 墜落, 打撲 등에는 銚針出血을 使用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sup>90)</sup>.

이에 대하여 王은 이와 같이 그는 虛寒病症에 禁忌하였고, 肝經은 血少하여 禁出血이라 하였으며, 또한 『各家鍼灸學說』에서는 出血의 禁忌에 出血後에

83) 儒門事親校註. 張從正. 河南.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4. p. 67.  
84) 儒門事親校註. 張從正. 河南.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4. p. 158.  
85) 傅維康. 鍼灸推拿學史. 서울. 醫聖堂. 1993. p. 163.

86) 儒門事親校註. 張從正. 河南.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4. p. 79.  
87) 陳克正. 古今鍼灸治驗精華.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3. p. 99.  
88) 張吉. 各家鍼灸醫籍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 75.  
89) 儒門事親校註. 張從正. 河南.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4. p. 65.  
90) 傅維康. 鍼灸推拿學史. 서울. 醫聖堂. 1993. p. 164.

兔, 鷄, 猪, 狗, 酒, 醋, 濕麵, 動風生冷과 憂忿勞力の 일을 禁하라 하였으니, 이는 『素問·刺禁』의 刺함에 禁해야 하는 것을 發展시켰다고 하였다<sup>91)</sup>. 이 내용은 刺絡瀉血攻下說中에 중요한 事項으로 지금도 刺絡瀉血法으로 治病時에 主意해야한다고 하였다<sup>92)</sup>.

이와 같이 刺絡瀉血은 祛邪安定하니 『素問·針解』에서 부터 “菟陳則除之者, 去惡血也.”이라 하여 歷代 醫家の 瀉血이 祛邪의 一대 治法이라 하였으며, 劉河間은 寒涼清火의 ‘八關大刺’의 瀉熱을 創하여 放血療法을 잘하였으며, 張從正은 刺絡出血을 廣範圍하게 瀉熱爲主로 利用하여 劉完素를 繼承하여 進一步 發展시켰음을<sup>93)</sup> 위의 鍼灸治療를 보면 알 수 있다.

## 2) 循經取穴

張從正은 臟腑經絡의 病에 대하여 항상 循經取穴하여 施治하였다. 그는 五臟病症의 治療에 대해서 『儒門事親·風木肝酸 達針』에서 “諸風掉眩, 皆屬于肝…… 可刺大敦, 灸亦同”<sup>94)</sup>이라 하여 肝經에 病이 있으면 藥과 鍼灸에 있어 마땅히 調達해야 한다 하였고, 『暑火心苦 發汗』에서 “諸瘡瘡瘍, 皆屬于心火…… 可刺少衝, 灸之亦同”<sup>95)</sup>이라 하여 心經에 病이 있으면 藥과 鍼灸治療는 모두 疏散이 法이 된다 하였으며, 『濕土脾甘 奪針』에서 “諸濕腫滿, 皆屬于脾土…… 可刺隱白, 灸亦同”<sup>96)</sup>이라 하여 脾經에 病이 있으면 藥과 鍼灸治療는 滲泄水濕하고 陰陽을 分利하는 것이 法이 된다 하였고, 『燥金肺辛 清針』에서 “諸氣憤鬱 皆屬于肺金…… 可刺少商, 灸亦同.”<sup>97)</sup>이라 하여 肺經에 病이 있으면 藥과 鍼灸治療에 있어 清膈

解表하고 通調水道한다 하였으며, 『寒水腎鹹 折針』에서 “諸寒收引, 皆屬于腎水…… 可刺湧泉, 灸亦同”<sup>98)</sup>이라 하여 腎經에 病이 있으면 藥과 鍼灸治療에 있어 冲逆을 折하고 寒水上凌을 못하게 하여 水火相濟하게 하는 것이 法이 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五臟病症에 대하여 각각 그 經脉의 井穴을 鍼灸하여 治療하였는데, 『各家鍼灸醫籍選』에서는 이에 대하여 五臟病의 鍼灸治療에 있어 辨證循經取穴하여 井穴을 多用하였다고 하였고<sup>99)</sup>, 『各家鍼灸學說』에서는 이를 張從正의 『內經』의 十九病機에 根據하여 구체적인 鍼灸治療를 提示하였고 井穴을 利用하여 通經泄邪하였으니, 이는 그의 攻邪論의 理論과 一致한다고 하였다<sup>100)</sup>. 이를 보면 張從正의 五臟病의 鍼灸治療는 劉完素의 ‘接經法’에서 井穴을 利用하여 治療함에 影響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 3) 灸法治療

張子和는 또한 刺絡出血療法 뿐만 아니라, 灸法도 善用하였는데, 그 例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泄瀉水腫治療에서는 『儒門事親·金匱十全五泄法後論』에 “凡治濕, 皆以利小溲爲主, 諸泄不已, 宜灸水分穴, 謂水谷之所別也, 臍上一寸半, 灸五壯, 腹鳴如雷, 水道行之候也. 凡濕勿針.”<sup>101)</sup>이라 하여 濕病에 針을 禁하고 灸를 사용하여 針과 灸의 適應症을 區別하였으며, 또한 目斜口喎치료에 대해서는 目鼻九竅는 足太陽, 手足少陽, 手足陽明의 脉이 順行하나, 鼻와 口의 左右는 手足陽明經이 依하여 口眼은 陽明經으로 胃土가 되니 甲乙木의 風에 傷하여 된 口眼窩斜는 마땅히 足陽明經으로 辨하여 治療한다 하여 『儒門事親·證口眼窩斜是經非竅辨』에서 “目之斜, 灸以承泣, 口之窩, 灸以地倉俱效. 苟不效者, 當灸人迎. 夫氣虛風入而爲偏, 上不得出 下不得泄, 眞氣爲風邪所陷, 故宜灸”<sup>102)</sup>라 하였다.

91) 魏稼. 各家鍼灸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p. 58.

92) 王啓才. 當代鍼灸醫學新論.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0. p. 210.

93) 魏稼. 各家鍼灸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p. 57.

94) 儒門事親校註. 張從正. 河南.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4. p. 477.

95) 儒門事親校註. 張從正. 河南.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4. p. 478.

96) 儒門事親校註. 張從正. 河南.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4. p. 478.

97) 儒門事親校註. 張從正. 河南.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4. p. 479.

98) 儒門事親校註. 張從正. 河南.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4. p. 480.

99) 張吉. 各家鍼灸醫籍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 75.

100) 魏稼. 各家鍼灸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p. 58.

101) 儒門事親校註. 張從正. 河南.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4. p. 519.

② 凍瘡治療에서는 『儒門事親·寒門』에 “凍瘡 因冬月行于冰雪中而得此證. 或經年不愈者, 用坡野中淨土晒乾, 以大蒜研如泥土, 捏作餅子, 如大觀錢厚薄, 量瘡口大小貼之, 以火艾加于餅上灸之, 不計壯數, 以泥乾爲度, 去乾餅子, 再換濕餅灸, 不問多少, 直至瘡痂覺痛痒, 是瘡活也.”<sup>103)</sup>라 하여 患處에 마늘 등을 밀에 깔고 뜸을 뜨는 일종의 間接灸의 方式을 이용하였다. 이처럼 凍傷을 治療할 경우에 灸法을 應用하여<sup>104)</sup>, 辛溫散寒하고 溫經解表의 法을 使用하고, 木香檳榔散을 利用하여 活血生肌하니 이는 外治의 法이고 또한 內治의 理致라고 할 수 있다<sup>105)</sup>.

③ 張從正은 灸法의 禁忌症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儒門事親·風門』에서 “五勞病 今人不明發表攻裏, 遂誤至此. 大忌暑月于手腕足踝上着灸. 以其手足者, 諸陽之表, 起于五指之外, 『內經』曰, 諸陽發四肢. 此穴皆是淺薄之處, 灸瘡最難痊也.”<sup>106)</sup>라 하였고, 또한 “及胸穴, 中脘, 臍下, 背俞, 三里等穴, 或有灸數百壯者. 加以燔針, 略無寸效, 病人反受苦楚, 可不思之.”<sup>107)</sup>라 하였으며, 『儒門事親·論火熱二門』에서 “凡醫人不明發表攻裏, 亂投湯劑, 有誤性命. 更大忌夏月燔灸中脘, 臍下, 關元, 氣海, 背俞等. 燔灸千百壯者, 全無一效, 使病者反受其殃, 豈不痛哉!”<sup>108)</sup>라 하여 暑月에 四肢를 灸하는 것과 夏月에 灸함을 大忌한다고 하였다.

또한 다른 方式의 治療法으로 사용된 烙法은 火로 직접 皮膚의 患處를 刺戟하는 것으로 일명 火灸法이라 한다. 小兒의 急驚風, 抽搐, 瘰癧에 燈蕊蘸香油를 皮膚穴位에 바른 후에 불을 붙이면 驚厥이 그친다 하였다<sup>109)</sup>.

이상과 같이 張從正은 針刺와 灸法을 구분하였으며, 灸法의 活用에서 直接灸 뿐만 아니라 間接灸形式으로 이용하였고, 夏月의 四肢에 灸함을 禁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李杲의 鍼灸治療法

李杲의 著書로는 『內外傷辨惑論』, 『脾胃論』, 『蘭室秘藏』, 『用藥法象』 등이 있고, 『用藥法象』에서 “祖潔古珍珠囊增加用藥凡例 諸經向導 綱要活法”<sup>110)</sup>이란 表現에서 보듯이, 그 主旨가 張元素의 主張에서 벗어나지 않으나, 다만 具體的運用에 있어서 發揮한 바가 많다. 그의 醫學理論은 주로 脾胃의 作用을 強調하였다.

鍼灸方面에서 李東垣은 傷寒과 癰疽, 眼目疾을 잘 治療하여 鍼灸方面에도 情密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sup>111)</sup>. 그는 鍼灸에 대하여 깊이 研究하여 『脾胃論』에 鍼灸治療와 관련된 內容이 記載되어 있는데, 그의 針法에 대하여 明代의 高武와 楊繼洲는 『鍼灸聚英』과 『鍼灸大成』 중에 특별히 『東垣針法』 一節을 分別 記錄하였다<sup>112)113)</sup>. 또한 陰病治陽, 陽病治陰에 대한 治法과 五亂의 治療法까지 發揮하였으며, 또한 脾胃學說을 利用하여 鍼灸 臨床을 하였다<sup>114)</sup>. 이러한 『東垣針法』의 精髓는 胃氣로 本을 삼는 것이니 그의 鍼灸學은 실로 補土派 針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李東垣의 針法은 明代의 鍼灸學에 影響이 미쳐 明代의 高武, 薛立齋, 張景岳 등은 李東垣鍼灸流派의 鍼灸法을 繼承하였다<sup>115)</sup>.

東垣의 鍼灸學說은 脾胃理論을 鍼灸學에 應用하였고 刺絡出血療法를 重視하였으며 灸法은 陰陽兩虛의 症에 利用하였다<sup>116)</sup>. 이러한 그의 針法을 補脾胃, 瀉陰

102) 儒門事親校註. 張從正. 河南.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4. p. 138.

103) 儒門事親校註. 張從正. 河南.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4. p. 569.

104) 조규선. 張從正의 中風論에 관한 考察. 大韓韓方內科學會紙 제18권. 1997. p. 263.

105) 儒門事親校註. 張從正. 河南.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4. p. 569.

106) 儒門事親校註. 張從正. 河南.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4. p. 555.

107) 儒門事親校註. 張從正. 河南.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4. p. 556.

108) 儒門事親校註. 張從正. 河南.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4. p. 540.

109) 李聰甫, 劉炳凡. 金元四大醫學家學術思想研究. 서울. 成甫社. 1985. p. 70.

110) 天津科學技術出版社總纂. 金元四大家醫學全集.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 858.

111) 郭世余. 中國鍼灸史. 서울. 의성당. 1994. p. 205.

112) 高武. 鍼灸聚英. 서울. 醫聖堂. 1978. p. 159.

113) 楊繼洲. 鍼灸大成校釋. 서울. 大成文化社. 1993. p. 1179.

114) 陳克正. 古今鍼灸治驗精華.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3. p. 100.

115) 郭世余. 中國鍼灸史. 서울. 醫成堂. 1994. p. 207.

116) 魏稼. 各家鍼灸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火鍼灸法과 五亂針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補脾胃, 瀉陰火鍼灸法

李東垣의 補脾胃하고 瀉陰火하기 위한 治療에 대하여 『各家鍼灸學說』에서는 그가 穴로 脾胃를 중시해 陰火를 制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1) 補脾胃論

그는 補脾胃하기 위하여 從陰引陽의 法과 虛則補其母의 方法을 利用하였으며, 形氣不足者에게 鍼灸의 不可함을 말하였다.

먼저 從陰引陽과 從陽引陰에 대하여 『各家鍼灸醫籍選』에서는 『陰病治陽, 陽病治陰』중에 『素問·陰陽應象大論』을 根據로 外感의 邪와 五臟內傷에 背俞穴의 取穴方法을 用하여 上熱下寒의 陰火가 陽位에 侵犯한 것을 陽位를 따라 治療하여 下로 陰에 入하는 從陽引陰法이 있고, 그 다음으로 從陰引陽法을 論述하여 “飲食失節及勞役形質, 陰火乘于坤土之中, 致胃氣, 元氣不得上升滋于六腑之氣, 是五陽之氣先絕于外”<sup>117)</sup>라 하였으니, 飲食失節과 勞役으로 陰火가 土中에 乘하여 元氣가 이에 傷하니 “當從胃合三里穴中推而揚之, 以伸元氣”라 하여 胃經의 合穴인 三里穴로 元氣를 펼치니 從陰引陽의 法이 된다. 또한 五臟이 不和하여 六腑의 元氣가 閉塞하니 “陽氣不足, 陰氣有餘”라 하여 腹部의 募穴로 治療하니 모두 元氣不足으로 從陰引陽의 法이 되며, 잘못하여 從陽引陰 혹은 從陰引陽의 法을 使用하면 後遺가 無窮하다 하였다<sup>118)</sup>.

① 從陰引陽法으로 補脾胃 : 元氣不足을 治하기 위하여 從陰引陽을 한다고 하였으니, 『脾胃論·陰病治陽, 陽病治陰』에서 “飲食失節, 又勞役形質, 陰火乘于坤土之中, 致穀氣, 榮氣, 清氣, 胃氣, 元氣不能上升滋推而揚之, 以伸元氣 故曰從陰引陽. 若元氣愈不足, 治在腹上諸腑之募穴. 若傳在五臟, 爲九竅不通, 隨各竅之病, 治其各臟之募穴于腹.”<sup>119)</sup>이라 하여 飲食失節과

勞役으로 陰火가 乘함으로 元氣가 上昇하지 못하게 되면 五臟六腑의 腹募穴로 治療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凡治腹之募, 皆爲元氣不足, 從陰引陽”<sup>120)</sup>이라 하여 元氣不足에 腹募穴을 治療하는 것은 從陰引陽이라 하였다.

『飲食勞倦所傷始爲熱中論』에서 『靈樞·邪氣臟腑病形』을 引用하여 “胃病者, 腹脹 …… 取三里以補之.”<sup>121)</sup>라 하여 三里를 取하여 補한다고 하였으며, 『靈樞·官能』에 “從下上者, 引而去之. 上氣不足, 推而揚之”라는 針法을 引用하여 陰에 在한 陽病에 屬하면 從陰引陽하여 熱厥을 治하는 法으로 疼痛病의 繆刺法에 屬한다 하였다<sup>122)</sup>.

李東垣은 元氣의 不足이 脾胃虛때문이라고 보았다. 즉 그는 “胃之一腑病, 則十二經元氣皆不足.”<sup>123)</sup>이라 하여 胃虛해지면 十二經의 元氣가 모두 不足해지고, “胃虛則五臟, 六腑, 十二經, 十五絡, 四肢皆不得營運之氣, 而百病生焉.”<sup>124)</sup>이라 하여 胃虛가 百病의 根本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므로 胃病 治療에 있어서, 『東垣試效方』에 “『黃帝針經』胃病者, 腹腹脹, 胃脘當心而痛, 上肢兩脇, 膈咽不通, 飲食不下, 取三里也”<sup>125)</sup>라 하여 三里穴을 取하였고, 또한 “『黃帝針經』云 手陽明大腸, 手太陽小腸, 皆屬足陽明胃. 小腸之穴在巨虛下廉, 大腸之穴在巨虛上廉, 此二穴皆在足陽明胃三里穴下也.”<sup>126)</sup>라 하여 治療에 있어서 下合穴과 腹募穴인 中脘, 足三里, 上巨虛, 下巨虛, 章門, 氣海, 血海等穴을 取하였다.

이를 『古今鍼灸治驗精華』에서는 東垣이 “從陰引陽”의 法을 이용하여 腹募穴과 胃經 下合穴의 陰部穴位를 取하여 脾胃陽氣를 補하였다고 하였고<sup>127)</sup>, 『各家鍼灸學說』에서는 補火生土法 外에 土를 직접 補하

120) 李東垣. 東垣十種醫書. 서울. 大成文化社. 1991. p. 109.

121) 李東垣. 東垣十種醫書. 서울. 大成文化社. 1991. p. 94.

122) 張吉. 各家鍼灸醫籍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 77.

123) 李東垣. 東垣十種醫書. 서울. 大成文化社. 1991. p. 113.

124) 李東垣. 東垣十種醫書. 서울. 大成文化社. 1991. p. 112.

125) 天津科學技術出版社總纂. 金元四大家醫學全集.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 688.

126) 李東垣. 東垣十種醫書. 서울. 大成文化社. 1991. p. 112.

127) 陳克正. 古今鍼灸治驗精華.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3. p. 100.

p. 60.

117) 李東垣. 東垣十種醫書. 서울. 大成文化社. 1991. p. 108.

118) 張吉. 各家鍼灸醫籍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 77.

119) 李東垣. 東垣十種醫書. 서울. 大成文化社. 1991. p. 108.

여 脾胃의 氣를 壯하게 하였으니, 胃의 合穴과 下合穴인 足三里는 또한 土에 屬하니, 이는 土經의 本穴로 “合治內府”라 하여 胃腑에 直接作用하여 脾胃의 元氣를 補하여 制陰火하는 目的을 이룬 것이다 하였다<sup>128)</sup>. 『各家鍼灸醫籍選』에서는 陽病治陰은 水穀의 寒熱로 六腑를 傷하고 勞役으로 形을 傷하고 陰火가 脾胃를 침범하여 胃氣, 元氣가 上昇하여 六腑의 陽을 滋養하지 못하니 五臟의 陽氣가 外에서 먼저 絶하게 하고, 혹은 情志所傷으로 因하여 胃氣가 不行하고 元氣가 이에 傷하니, 고로 胃의 合穴인 三里를 따라 推揚하여 元氣를 伸하니, 이는 從陰引陽의 法이 된다. 혹은 元氣虛虧하면 六腑의 募穴을 治療하고, 혹은 五臟에 傳해 九竅不通하며 陽氣不足하고 陰火有餘의 症이 되니, 各竅의 病을 따라 各臟의 腹募穴을 治療하며 이는 모두 從陰引陽의 法에 屬한다 하여<sup>129)</sup>, 위에서 敍述한 從陰引陽의 治法에 대하여 說明을 더욱 자세하게 해주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名醫類案·痞滿』에서 “東垣治一貴婦, 八月中, 先因勞役飲食失節, 加以憂思, 病結痞, 心腹脹滿, 且食則不能暮食, 兩脇刺痛, 診其脉, 弦而細, 至夜濁陰之氣當降而不降, 膈脹尤甚. 大抵陽主運化, 飲食勞倦, 損傷脾胃, 陽氣不能運化精微, 聚而不散, 故爲脹滿. 先灸中脘, 乃胃之募穴, 引胃中生發之氣上行陽道, 又以木香順氣湯助之. 使濁陰之氣自此而降矣.”<sup>130)</sup>이라 하였는데 이는 痞滿에 東垣이 從陰引陽法으로 中脘募穴을 灸하여 脾胃陽氣를 溫補함을 보여주는 좋은 臨床例인 것이다.

② 灸治로 補脾胃 : 形氣不足한 경우에는 刺함이 不可하고 補하여야 하니, 灸治로 補脾胃하였다. 『內外傷辨·說病形有餘不足當補當瀉之理』에서 그는 “老夫欲令醫者治陰陽之症, 補瀉不至錯誤, 病家雖不知醫, 明曉所得之病, 當補當瀉之法, 將『黃帝針經』第一卷第五篇說形氣有餘不足當補當瀉之理, 錄之于前, 予自注者附之”라 하여 形不足者의 鍼灸治療에 대하여 刺함의 可함과 不可함을, 그리고 灸에 대하여 『黃帝針經』

을 引用하여 說明하였는데, 이를 보면 “黃帝曰 形氣之逆順奈何 岐伯答曰, 形氣不足, 病氣有餘, 是邪勝也, 急當瀉之. 形氣有餘, 病氣不足, 急當補之. 形氣不足, 病氣不足, 此陰陽俱不足也, 不可刺之. 刺之重不足, 重不足則陰陽俱竭, 血氣皆盡, 五臟空虛, 筋骨髓枯, 老者絕滅, 壯者不復矣. 形氣有餘, 病氣有餘, 此謂陰陽俱有餘也, 急瀉其邪, 調其虛實. 故曰 有餘者瀉之, 不足者補之, 此之謂也. 故曰. 刺不知逆順, 眞邪相搏, 滿者補之, 則陰陽四溢, 腸胃充廓, 肝肺內脹, 陰陽相錯. 虛而瀉之, 則經脉空虛, 血氣枯竭, 腸胃備辟, 皮膚薄著, 毛腠夭焦, 予之死期, 故曰:用針之要, 在于知調陰與陽調陽與陰, 精氣乃光, 合形與氣, 使神內藏, 故曰:上工平氣, 中工亂脈, 下工絕氣危生, 故曰:下工不可不慎也, 必察五臟變化之病, 五脈之應, 經絡之虛實, 皮膚之柔粗, 以後取之也. …… 但病來潮作之時, 病氣精神增添者, 是爲病氣有餘, 乃邪氣勝也, 急瀉之, 以寒涼酸苦之劑. 若病來潮作之時, 神氣困弱者, 爲病氣不足, 乃眞氣不足也, 急補之, 以辛甘溫熱之劑. 不問形氣有餘并形氣不足, 但取病氣有餘不足也, 不足者補之, 有餘者瀉之. 假令病氣有餘者, 當急瀉之, 以寒涼之劑, 爲邪氣勝也. 病氣不足者, 急當補之, 以辛甘溫熱之劑, 此眞氣不足也. …… 若病人形氣不足, 病來潮作之時, 病氣亦不足, 此乃陰陽俱不足也, 禁用針, 宜補之以甘藥, 不可盡劑, 不灸弗已, 臍下一寸五分氣海穴是也.”<sup>131)</sup>라 하여 그가 五臟을 治療하고 補脾胃하기 위하여 腹募穴을 取하였고, 針과 灸를 分別하였다. 그러므로 “形氣不足, 病氣不足, 此陰陽俱不足也, 不可刺之.”라 하여 刺하면 더욱 不足해지기 때문에 陰陽俱不足은 刺함이 不可하다 하였으며, 甘藥으로 補해야 하고, 氣海穴을 灸한다하여 可刺와 不可刺도 分하여 治療한 바를 살펴 볼 수가 있다.

한편 東垣은 “若錯補四末之脈, 錯瀉四末之餘 錯瀉者, 差尤甚矣. 按岐伯所說, 況取穴于天上, 天上者, 人之背上五臟六腑之脈, 豈有生者乎?”<sup>132)</sup>라 하여 補瀉가 錯하면 더욱 甚해진다고 하였는데, 補脾胃가 治의 本이므로, 外感의 邪와 五臟內傷에 陰火가 陽位에 侵犯한 것을 治療하는 從陽引陰法인, 四肢末端의 俞穴을 取함

128) 魏稼. 各家鍼灸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p. 59.

129) 張吉. 各家鍼灸醫籍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 78.

130) 江雅. 名醫類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 88.

131) 李東垣. 東垣十種醫書. 서울. 大成文化社. 1991. p. 62.

132) 李東垣. 東垣十種醫書. 서울. 大成文化社. 1991. p. 109.

과 臟腑의 背俞穴을 瀉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였다.

③ 虛則補其母로 補脾胃陽 : 東垣은 虛則補其母로 脾胃의 陽氣를 補充하는 方法을 이용하였다. 그러므로 腦空, 頭傾, 耳鳴, 目眩 등의 上氣不足과 飧泄, 腸澼, 腸鳴, 下利 등의 中氣不足과 下肢痿軟, 手足厥冷, 心中鬱悶 등의 下氣不足에 대하여 『脾胃論·三焦元氣衰旺』중에 『黃帝針經』에서 “下氣不足, 則爲痿厥心忡, 補足外踝下留之此三元眞氣衰憊, 皆由脾胃先虛, 而氣不上行之所致也”<sup>133)</sup>라 하였다. 그러므로 足外踝下の 足太陽膀胱經의 崑崙穴(火穴)을 取하여 火生土 하여 腎水를 補하였다.

이와 같이 東垣은 鍼灸로 補脾胃하기 위하여 腹募穴과 下合穴을 利用한 從陰引陽法과, 俞穴을 이용한 虛則補其母의 原理로 針刺하는 方法과, 形氣不足하고 陰陽이 俱虛한 者는 甘藥으로 補하며 氣海穴을 灸하는 方法 등을 사용하였다.

(2) 瀉陰火法

① 從陽引陰法으로 瀉陰火 : 東垣은 ‘從陽引陰’을 이용하여 陰火를 瀉하여 陽絡을 泄하는 方法을 사용하였다. 그는 陰病治陽에 風寒邪氣가 乘虛하여 人體에 侵入하여 臟腑의 背俞穴에 侵入하여 陽에 中하고 經에 流하여 足太陽膀胱經에 沿하고 內로 臟腑에 犯하니 五臟六腑에 관련된 病症이 出한다. 각기 五臟의 背俞穴을 治療하여 從陽引陰한다. 風寒의 邪가 臟腑에 侵犯하니, 즉 暑, 濕, 燥邪가 相關 臟腑의 背俞穴을 取하여 治療하니 中暑에는 小腸俞를, 中濕에 胃俞, 中燥에 大腸俞 등을 取하였으며, 모두 背俞穴을 治한다고 하였다.

이는 一種의 陰病이 陽에 在하면 從陽引陰法으로 上熱下寒의 陰火上亢의 症이 있으면, 手足六陽經에서 먼저 五臟의 血絡을 제거하고 引하여 下行하니, 陰火를 下降케 한다 하였다. 또한 六陽經의 腑熱을 홀로 瀉하지 못하니, 上焦의 陽位를 따라 陰火를 下行케 하고 絡脉과 經隧의 間의 瘀阻를 疏通하여 六腑의 熱을 調節하니 또한 從陽引陰(火)의 法에 屬한다<sup>134)</sup>.

한편 東垣은 또한 “上熱下寒, 筋, 骨, 皮, 肉, 血, 脉之病, 錯取穴于胃之合及諸腹之募者必危”<sup>135)</sup>라 하여 瀉陰火에 補脾胃하는 腹募穴과 胃合穴을 取함이 不當하다 하였다.

이와 같이 李東垣은 鍼灸治療에서 腹募穴과 背俞穴 그리고 下合穴과 五腧穴을 이용하여 從陰引陽法으로 補脾胃하고, 從陽引陰法으로 陰火를 瀉함을 구별하여 治療하였다.

② 刺絡出血로 瀉陰火 : 李東垣은 治療에 있어서 刺絡出血療法을 利用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먼저 『脾胃論·脾胃虛弱隨時爲病隨病制方』에서 “『黃帝針經』云 從下上者, 引而去之. 上氣不足, 推而揚之. 蓋上氣者, 心肺上焦之氣. 陽病在陰, 從陰引陽, 使昇發脾胃之氣, 又從而去其邪氣于腠理皮毛. 又云, 視前痛者, 常先取之. 先以繆刺瀉其經絡之壅者, 爲血凝而不流, 故先去之, 而後治他病.”<sup>136)</sup>이라 하여 從陰引陽의 治法에서 壅滯되어 血凝이 된 經絡을 刺한 後에 다른 病을 治療한다고 하였다.

또한 『脾胃論·陰病治陽, 陽病治陰』에 “另有上熱下寒, 經曰. 陰病在陽, 當從陽引陰, 必順先去絡脉經隧之血. 若陰中火旺, 上勝于天, 致六陽反不衰而上充, 先去五臟之血絡, 引而下行, 天氣降下, 則下寒之病自去矣.”<sup>137)</sup>라 하여 上熱下寒은 陰病이 陽에 있는 것으로 마땅히 從陽引陰하여야 하니 반드시 먼저 絡脉과 經隧의 血을 제거해야하고, 만약 陰중에 火가 旺하여 天으로 上勝하여 六陽이르고 도리어 衰하지 않고 上充하면, 먼저 五臟의 血絡을 제거하고 引하여 下行한다고 하였다. 예로 『脾胃論·脾胃虛弱隨時爲病隨病制方』에 脾胃虛弱하여 濕에 感하여 痿를 成하니 “如汗大泄者, 津脫也, 急止之 …… 三里 氣街, 以三稜針出血. 若汗不減不止者, 于三里穴下三寸上廉穴出血.”<sup>138)</sup>이라 하여 脾胃虛弱에 黃芪人蔘五味子麥門冬湯을 症에 따라 加味하고 後에 針刺治療로 局部를 取하여 出血시키거나 혹은 足三里, 上巨虛, 氣衝穴에서 瀉血시켰다.

133) 李東垣. 東垣十種醫書. 서울. 大成文化社. 1991. p. 109.  
134) 張吉. 各家鍼灸醫籍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 78.

135) 李東垣. 東垣十種醫書. 서울. 大成文化社. 1991. p. 109.  
136) 李東垣. 東垣十種醫書. 서울. 大成文化社. 1991. p. 99.  
137) 李東垣. 東垣十種醫書. 서울. 大成文化社. 1991. p. 108.  
138) 李東垣. 東垣十種醫書. 서울. 大成文化社. 1991. p. 97.

刺絡出血에 대한 다른 예를 살펴보면, 『蘭室秘藏·眼耳鼻門·還睛紫金丹』에 目眶赤爛의 治療에 있어서도 “治目眶歲久赤爛 俗呼爲赤睛是也, 當以三稜針刺目眶外, 可瀉濕熱, 如眼生倒睫拳毛, 兩目緊, 蓋內服火熱而攻氣, 法當去其熱內火邪, 眼皮緩則毛立出, 腎膜亦退, 用手法攀出內臉向外, 以針刺之出血”<sup>139)</sup>이라 하여 刺絡出血을 濕熱로 인한 目疾에 還睛紫金丹과 더불어 用하면서 治療하였고, 또한 『蘭室秘藏·腰痛門』에서 寒濕地에 露宿하여 不能轉側하고 兩脇搖急作痛하여 오래된 자를 治하는 川芎肉桂湯을 說明하면서 “腰痛論中說 皆爲足太陽, 足少陰血絡中有凝血作痛, 間有一二證屬少陽膽經外絡脉病, 皆去血絡之凝乃愈, 其『內經』有云 冬三月, 禁不得用針, 只宜服藥, 通其經絡, 破其血絡中敗血, 以此藥主之”<sup>140)</sup>라 하여 血絡中の 敗血을 祛하기 위하여 刺絡하였고, 『東垣試效方·偏枯二指』에서 “則以長針刺委中, 深至骨而不知痛, 出血一二升, 其色如黑, 又且繆刺之. 如是者六七次, 服藥三月 病良愈”<sup>141)</sup>라 하여 刺絡出血療法을 瘀血과 濕熱證에 광범위하게 使用하였다.

또한 『內經·調經論』의 “燔針劫刺”<sup>142)</sup>의 法을 사용해 刺出血하여 經絡凝結을 去하고 衝脈의 火를 泄하였다. 이와 같이 放血泄熱의 目的으로 이를 行하였으며, 그는 『內經』의 放血療法을 繼承하여 實證과 熱症에 利用하였고, 虛症에 使用하지 않았으며, 實證에 있어 經絡壅滯症, 大熱症, 濕熱症, 瘀血症에 運用하였다<sup>143)</sup>.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東垣은 瀉陰火하기 위하여 그는 背俞穴을 利用한 從陽引陰法과, 刺絡出血療法으로 瀉陰火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祛外邪法

外邪侵入을 兼한 경우에는 背俞穴을 取하여 瀉하였다.

예로 『脾胃論·陰病治陽, 陽病治陰』에서 “六淫濕暑燥火, 皆五臟所受, 乃筋骨血脉受邪, 各有背上五臟俞以除之, 傷寒一說從仲景. 中入風者, 有風論, 中暑者, 治在背上小腸腧, 中濕者, 治在胃腧, 中燥者, 治在大腸腧, 此六淫客邪有餘之病, 皆瀉在背之腑俞.”<sup>144)</sup>라 하여 小腸俞를, 中濕에 胃俞를, 中燥에 大腸俞를 取하여 外邪의 侵入을 治療하였다.

또한 東垣은 “若六淫客邪 及上熱下寒, 筋, 骨, 皮, 肉, 血, 脉之病, 錯取穴于胃之合及諸腹之募者必危.”<sup>145)</sup>라 하였는데, 이와 같이 李東垣은 六淫客邪의 病에 足三里와 腹募穴을 取함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여 從陰引陽의 內因으로 인한 疾病治療로 錯하지 말라 하였다.

### (4) 祛奇邪法

火邪가 奇經에 犯하면, 『脾胃論·胃虛臟腑經絡皆無所受氣而俱病論』에 “病癘者, 涎沫出于口, 冷汗出于身, 清涕出于鼻, 皆陽蹻, 陰蹻, 督, 衝四脉之邪上行, 腎水不任煎熬, 沸騰上行爲之也. 此奇邪爲病, 不繫五行陰陽十二經所拘, 當從督, 衝, 二蹻四穴中奇經之法治之.”<sup>146)</sup>라 하여 腎水가 끊어 五液이 끊고 上竅로 騰하여 癡症 등이 發作하여 卒然히 倒地하고, 手足이 抽動하며, 涎沫이 口角따라 흘러나오고, 全身에서 冷汗이 出하며, 鼻內에 清涕가 흐르고, 甚하면 小便失禁한다 하였다. 東垣은 이런 奇邪로 病이 됨을 說明하였으며, 奇脉의 人中, 陰交, 申脈, 照海 4穴을 取함을 중요하게 여겨 奇經의 穴을 取穴하는 것을 說明하였다.

### 2) 五亂針法

人體가 正常時에는 清氣가 上에 在하고 濁氣가 下에 在한다. 異常時에는 清氣가 下에 在하고, 濁氣가 上에 在하니 清濁이 相干하여 氣亂이 發生하고 心, 肺, 腸胃, 頭, 手足에 一連의 病理變化가 發生한다고 하였다<sup>147)</sup>. 그러므로 『脾胃論·胃氣下溜五臟氣皆亂其爲病互相出見論』<sup>148)</sup>에서 五亂을 說하였고, 『鍼灸大

139) 李東垣. 東垣十種醫書. 서울. 大成文化社. 1991. p. 184.

140) 李東垣. 東垣十種醫書. 서울. 大成文化社. 1991. p. 198.

141) 天津科學技術出版社總纂. 金元四大家醫學全集.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 733.

142) 楊維傑. 黃帝內經素問釋解. 서울. 一中社. 1991. p. 466.

143) 魏稼. 各家鍼灸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p. 59.

144) 李東垣. 東垣十種醫書. 서울. 大成文化社. 1991. p. 108.

145) 李東垣. 東垣十種醫書. 서울. 大成文化社. 1991. p. 109.

146) 李東垣. 東垣十種醫書. 서울. 大成文化社. 1991. p. 114.

147) 陳克正. 古今鍼灸治驗精華.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3. p101.

成』에서 『靈樞·五亂』의 五亂은 心, 肺, 腸胃, 頭, 肩足이 東垣의 五亂과 다르다고 하였고<sup>149)</sup>, 이에 대하여 『古今鍼灸治驗精華』에서는 『靈樞·五亂』에 基礎를 하여 引導針法을 採用하였으니, 不補不瀉하고 深刺하여 ‘復其本位’하게 한다고 하였다<sup>150)</sup>. 東垣의 「五亂」은 各 部分의 末尾에 治療에 대한 說明을 실어, 『靈樞·五亂』을 더욱 發明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氣在于心하면 “氣亂于心, 則煩心密噤, 俛首靜伏”이라 하여 “氣在于心者, 取之手少陰心主之輸(神門, 大陵). 滋以化源補以甘溫瀉以甘寒, 以酸救之, 以小故通之, 以微苦辛甘輕劑, 同精導氣使復其位”라 하니, 手少陰經의 神門穴과 手厥陰의 大陵穴을 取하고, 더불어 甘溫으로 補하고 甘寒으로 瀉하며 酸으로 救하고 小로 通하며 微苦辛甘의 輕劑로 同精導氣로 補脾胃하고 瀉陰火하여 그 位를 復하게 한다고 하였다.

氣在于肺하면 “氣亂于肺則俛仰喘喝, 按手以呼”라 하였으며 “氣在于肺者, 取之手太陰榮, 足少陰輸(魚際并太淵輸). 太陰以苦甘寒, 乃亂於胸中之氣, 以分化之味去之, 若成痿者, 以導濕熱, 苦善多涕從權, 治以辛熱, 仍引胃氣前出陽道, 不令濕土剋腎, 其穴在太溪.”라 하여, 東垣은 이에 太陰은 苦甘寒의 味로 胸中之 氣亂을 去한다 하였다. 그리고 痿證, 兩足軟弱無力에는 足少陰經太溪穴을 取하여 濕熱을 去한다 하였다.

氣在于腸胃하면 “爲癯亂”하고 “取之足太陰, 陽明, 不下者取之三里(章門, 中脘, 三里). 因足太陰虛者, 於募穴中, 導引之於血中, 有一說, 腑輸去腑病也, 胃虛而致太陰無所稟者, 於足陽明之募穴中, 引導如氣逆上爲癯亂者, 取三里氣下乃之, 不下復始.”라 하여, 足太陰經의 募穴인 章門穴과 足陽明經의 募穴인 中脘穴을 取하고 不愈하면 다시 足三里穴을 取한다 하였다.

氣在于頭하면 “爲厥逆, 頭重眩仆”하고, “氣在于頭, 取之天柱, 大杼, 不知, 取足太陽榮, 輸(通谷深, 束谷深). 先取天柱大杼, 不補不瀉, 以導氣而已, 取足太陽膀胱經中, 不補不瀉, 深取通谷束骨, 丁心火已脾土穴中, 以引導去之, 如用藥於太陽引經藥中, 少加苦寒甘

寒, 以導去之, 清涼爲之輔佐及使.”라 하여, 東垣은 먼저 天柱와 大杼穴과 膀胱經의 通谷, 束骨을 不補不瀉로 刺하여 心火를 脾土穴中으로 引導하여 去하고 太陽引經藥中에 苦寒甘寒을 少加하여 清涼케 하여 去한다고 하였다.

氣在于手足하면, “爲四厥”하고, “氣在于臂足, 取之先去血脉, 後取其陽明, 少陽之榮, 輸(二間, 三間深取之, 內庭, 陷谷深取之). 視其足, 臂之血絡盡取之, 後治其痿厥, 皆不補不瀉, 從陰深取, 而引上之. 上之者 出也, 去也. 皆陰火有餘, 陽氣不足, 伏匿于地中者血, 榮也, 當從陰引陽, 先于地中升舉陽氣, 次瀉陰火, 乃導氣同精之法.”<sup>151)</sup>이라 하여, 東垣은 足과 臂의 血絡을 모두 取하고 後에 痿厥을 不補不瀉하여 取하고 陰을 따라 深取해 인도하여 上하고, 上한것은 出하여 제거하니, 모든 陰火有餘는 陽氣不足으로 먼저 升舉陽氣하고 次에 瀉陰火하여 導氣同精의 法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東垣은 五亂針法中에 있어서는 대다수가 榮穴, 俞穴과 募穴을 取하였으며, 五亂에 針法뿐만 아니라, 立方의 原則을 같이 敍述하여 『靈樞·五亂』을 더욱 補充하였다. 이러한 邪가 人體에 犯하여 된 氣亂治法에 대한 「東垣針法」을 『鍼灸聚英』과 『鍼灸大成』에서 引用하여 記載되어 後代에 影響을 주었다<sup>152)</sup>.

### 3) 기타 鍼灸治療

東垣은 針의 補瀉에 대하여 “東垣曰 黃帝曰, 補瀉奈何? 岐伯曰, 徐入徐出, 謂之導氣, 補瀉無形, 謂之同精, 是非有餘不足也, 亂氣之相逆也.”<sup>153)</sup>라 하였다. 여기서 말한 “同精導氣”에 대하여 『古今鍼灸治驗精華』에서는 『內經』에서 “徐入徐出, 謂之導氣, 補瀉無形, 爲之同精.”이라 하였는데, 李杲는 同精導氣의 意義를 進一步하여 針法에 營氣와 衛氣가 往來 하도록 疏導하는 針法을 強調하여 榮氣와 衛氣가 모두 胃中의 水谷의 精氣로 化生하도록 하였다. 이로 榮衛의 氣가 暢通하면 脾胃가 精氣를 化生하여 臟腑, 四肢百骸를

148) 李東垣. 東垣十種醫書. 서울. 大成文化社. 1991. p. 107.  
149) 楊繼州. 鍼灸大成校釋. 서울. 大成文化社. 1993. p. 1180.  
150) 陳克正. 古今鍼灸治驗精華.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3. p. 101.

151) 李東垣. 東垣十種醫書. 서울. 大成文化社. 1991. p. 108.  
152) 陳克正. 古今鍼灸治驗精華.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3. p. 101.  
153) 李東垣. 東垣十種醫書. 서울. 大成文化社. 1991. p. 108.

滋養하고, 平補平瀉의 法으로 榮衛를 調節하여 平衡을 調節하니, 補元氣의 目的을 이룬다고 하였고<sup>154)</sup>, 取穴方面에 있어서 五臟의 俞穴(原穴)과 六腑의 原穴과 榮(火)穴을 多用하였다.

이는 모두 陰火有餘 陽氣不足으로 導氣同精法, 從陰引陽으로 먼저 上焦陽氣를 引導하여 上行하고, 그 後에 陰火를 瀉하여 下降하게 하니, 原穴을 取하여 陽氣를 引하고 榮穴을 取하여 陰火를 瀉한다. 즉 陰火를 下行시켜 제거하고, 陽氣를 上行疏導하여 生發한다 하였<sup>155)</sup>.

『鍼灸大成』에서 “同精導氣”의 精은 水谷精微의 血을 指稱하고 氣는 榮衛之氣를 指稱하니 本句는 榮衛之氣를 導引하여 血과 相和하게 함을 說明하는 것이 고<sup>156)</sup>, 또 深刺之法으로 下焦에서 부터 榮氣를 導引하여 陽으로 上行하니, 伏匿의 陽氣를 體表와 四肢로 行하게 하고, 人體의 表裏陰陽이 平順하게 하니 이 治法을 “導氣同精”의 法이라 하고, 不補不瀉이며, 먼저 深部로 부터 陽氣를 昇하고, 後에 瀉陰火하는 것을 導氣同精이라 한다 하였<sup>157)</sup>. 이를 보면 同精導氣는 營氣와 衛氣를 調節하는 平補平瀉의 針法을 이용한 補脾胃 瀉陰火하는 方法이라 하겠다.

灸法에 있어서 『活發機要·癘風證』에서 “癘風者, 營氣熱附, 其氣不清, 鼻柱環而色敗, 皮膚瘡潰, 風寒客于脉而不去 故名癘風, 又名脈風 俗曰癘, 治法刺肌肉百日, 汗出百日, 凡二百日順眉生而止. 先樺皮散從少至多, 服五七日, 灸承漿穴七壯, 灸瘡愈再灸, 再愈三灸.”<sup>158)</sup>라 하여 肺臟風毒으로 인한 瘡瘍에 灸를 用하였다. 이렇게 瘡癰治療에 있어서도 鍼灸治療을 하였는데, 腦疽治療에 對하여 “東垣曰 腦疽及頸項有疽不可用隔蒜灸, 恐引毒上攻. 宜灸足三里穴五壯, 氣海穴三七壯, 或以騎馬穴法灸之. 凡頭項咽喉生疽古法皆爲

不治, 若用此法多有生者.”라 하여 隔蒜灸, 騎馬穴法의 灸法을 瘡瘍 癰疽에 使用함을 說하였<sup>159)</sup>.

그는 灸法에 慎重을 기하였는데 『蘭室秘藏·頭痛門』에 “昔有人少時氣弱, 常于氣海, 三里灸之 …… 至年老添熱厥頭痛.. 皆灸之過也”라 하였으며, 『名醫類案·癱木』에 “病體熱癱 …… 身重如山”<sup>160)</sup>이라 하여 “邪熱客于經絡之中”이라 하니, 이 症狀은 灸法의 誤治라 하였다. 이 醫案들을 보면 誤灸의 過를 명확히 하여 灸法에 항상 警戒하다. 이런 灸法의 過로 針法의 記載가 비교적 詳細하며 많고, 灸法에 대하여는 반대로 簡略하다<sup>161)</sup>.

그리고 標本에 따른 針刺 治療에 대하여 五臟穴을 이용한 治療法을 說하였으니, 『東垣先生試效方·藥象門』의 「標本陰陽論」에서 “從前來者爲實邪, 從後來者爲虛邪, 此子能令母實, 母能令子虛是也. 治法云, 虛則補其母, 實則瀉其子. 假令肝受心火之邪, 是從前來者, 爲實邪, 當瀉其子火也, 然非直瀉其火, 十二經中各有金, 水, 木, 火, 土, 當木之分, 瀉其火也. 故「標本論」云, 本而標之, 先治其本, 後治其標. 即肝受火邪, 先于肝經五穴中瀉榮心行間穴是也. 後治其標者, 于心經五穴內, 瀉榮火少府穴是也. 以藥論之, 入肝經藥爲之引, 用瀉心火藥爲君, 是治實邪之病也, 假令肝受腎邪, 是從後來者, 爲虛邪, 虛則補其母, 故「標本論」云 標而本之, 先治其標, 後治其本. 則肝受水邪, 當先于腎經湧泉穴中補木, 是先治其標. 後于肝經曲泉穴中瀉水, 是後治其本. 此先治其標者, 推其至理, 亦是先治其本也. 以藥論之, 入腎經藥爲引, 用補肝經藥爲君是也.”<sup>162)</sup>라 하여 實邪의 病에는 먼저 本治인 肝經의 火熱인 行間을 取하고 그 다음 標治인 心經의 火穴인 少府를 取한다 하였다. 肝受水邪인 虛邪의 病에 먼저 標인 腎經의 木穴인 湧泉을 取하고 그다음 本治인 肝의 水穴인 曲泉을 取한다고 하여 虛則補其母와 標本에 따른 穴을 取하였다. 虛邪와 實邪에 따른 標本의 先後治를 論하면서 虛則補其母의 虛邪治療法을 說明하였다.

154) 陳克正. 古今鍼灸治驗精華.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3. p. 101.  
 155) 張吉. 各家鍼灸醫籍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 79.  
 156) 楊繼州. 鍼灸大成校釋. 서울. 大成文化社. 1993. p. 1180.  
 157) 楊繼州. 鍼灸大成校釋. 서울. 大成文化社. 1993. p. 1182.  
 158) 天津科學技術出版社總纂. 金元四大家醫學全集.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 785.

159) 郭世余. 中國鍼灸史. 서울. 醫聖堂. 1994. p. 207.  
 160) 薛己. 薛氏醫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 108.  
 161) 魏稼. 各家鍼灸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p. 59.  
 162) 天津科學技術出版社總纂. 金元四大家醫學全集.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 673.

『各家鍼灸醫籍選』에서는 이 東垣針法에 대하여 『內經』의 理論의 指導下에 자기의 臨床經驗을 結合해 鍼灸法을 運用하여 脾胃를 調治하고, 補元氣하고 抑陰火하여 人體定常生理機能을 發하여 同精導氣하며 陰陽을 調節하여 鍼灸로 補脾한 독특한 業績이라 하였다<sup>163)</sup>. 이를 보면 東垣은 腹募穴과 下合穴을 이용하여 從陰引陽法으로 補脾胃, 瀉陰火하고, 背俞穴을 取하는 從陽引陰法으로 外邪를 除去하였으며, 原穴과 榮穴을 이용하여 虛則補其母의 方法으로 補脾胃하였는데, 이는 補脾胃하는 補土派의 思想과 藥物治療 뿐만 아니라 鍼灸治療도 一致한다고 할 수 있다.

#### 4. 朱震亨의 鍼灸治療法

朱震亨의 醫學은 『素問』과 『傷寒論』을 根本으로 하였고, 그의 著書로는 『格致餘論』, 『局方發揮』, 『傷寒辨疑』, 『本草演義補遺』, 『外科精要新論』 등이 있다<sup>164)</sup>.

그의 스승인 羅知悌가 劉完素의 弟子인 荊山浮屠에게 直接 師承한 까닭에 劉完素의 影響을 많이 받았다<sup>165)</sup>. 그중 그의 醫論에 거론되는 唐代的 王冰, 宋代 陳無擇, 錢乙, 金元代的 王好古 등에서 일정한 影響을 받았다고 본다<sup>166)</sup>.

그의 著書인 『丹溪心法』과 『丹溪手鏡』 등에 鍼灸學內容이 記載되어 있으며, 經穴 配列에 있어 “周身經穴”을 썼고, 또한 十二經脉病候를 補充하여 “合生見症”을 敍述하고, 辨證하여 分經治療를 主張하였다.

『丹溪心法·拾遺雜論』에서 “針法渾是瀉而無補 ……故下針隨處皆可.”<sup>167)</sup>라고 하여 針刺는 瀉이고 補가 없다는 針法渾是瀉而無補說을 主張하였으며, 이를 따라 針法의 瀉法運用을 重要視하였다. 『丹溪心法』에

三稜針으로 委中出血하여 癘風, 瘀血腰痛을 治療하였다는 內容 등 三稜針을 이용한 治療法이 있다. 『脈因證治』에선 三稜針을 利用하여 氣衝을 出血하여 吐血을 治하고 少商放血하여 喉痺 등을 治療하였다. 『格致餘論』에서 痛風을 治한 醫案이 있어 “鄰鮑六, 年二十餘, 因患血痢, 用澁藥取效, ……此惡血入經絡證, 血受濕熱, 久必凝濁, 所下未盡, 留滯隧道, 所作痛, 經久不治, 恐成偏枯, ……又與刺委中出血近三合而安”<sup>168)</sup>이라 하였으며, 放血외에도 毫針과 火針의 用法은 攻瀉와 有關하다. 『脈因證治』에서 五種心痛의 針刺取穴에 攻邪行滯가 爲主이며, 『丹溪手鏡』에 瘰癧에 火針으로 그 核上을 攻破 祛瘀의 目的으로 刺하였다. 이러한 그의 觀點은 明代의 鍼灸著作中 汪機 『鍼灸問答』과 徐春甫 『古今醫統』, 楊繼州의 『鍼灸大成』중에 引用되어 敍述되었으며 影響이 매우 크다<sup>169)</sup>.

이와 같이 그의 鍼灸醫學中 독특한 見解가 적지 않으며, 艾灸는 火를 補하기도 하며 瀉하기도 한다 하였으며, 특히 熱症의 灸法의 理論이 特徵이고, 또한 ‘合生見症’의 說은 이미 臟腑關係와 經絡表裏, 循行部位와 病變의 關係를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1) 十二經脉病候의 補充

『丹溪心法』卷首에 ‘十二經見症’을 敍述하여 十二經의 各病候를 紹介하였다. 이는 『靈樞·經脉』의 十二經病候를 補充한 것으로<sup>170)</sup>, 이를 表로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經絡	補充 證 候
足太陽膀胱經	臍反出, 便膿穴, 肌肉痠, 小腹脹痛, 按之欲小便不得
足陽明胃經	不能言, 胸傍過乳痛, 髀不可轉, 遺溺失氣
手陽明大腸經	耳聾渾渾惛惛, 耳鳴嘈嘈, 皮膚壳壳軟堅而不痛

163) 張吉. 各家鍼灸醫籍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 79.  
 164) 洪元植. 尹暢烈. 中國醫學史. 서울. 一中社. 2001. p. 326.  
 165) 송철호, 홍원식, 김광호. 金元四大家에 관한 研究. 慶熙韓醫大論文集 Vol. 9. 1986. p. 64.  
 166) 金重漢. 朱震亨의 滋陰學說과 張介賓. 李奎峻의 扶陽學說에 대한 比較연구. 東醫大學校東醫論集 제 20집. 1993. p. 164.  
 167) 朱震亨.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 468.

168) 朱震亨.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 18.  
 169) 魏稼. 各家鍼灸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p. 67.  
 170) 陳克正. 古今鍼灸治驗精華.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3. p. 139.

足太陰 脾經	九竅不通, 皮膚潤而短氣, 肉痛
足少陰 腎經	臍左脇下背肩髀間痛, 大便難, 腹大頸腫, 脊中痛, 腰冷如水及腫, 臍下氣逆, 小腹急痛泄, 下腫足行寒而逆, 陰下濕, 四指正黑, 凍瘡, 善思
足厥陰 肝經	頭痛, 耳無聞, 頰腫, 目赤腫痛, 四肢滿悶, 挺壯熱, 足厥寒, 胎善瘦, 節時腫, 便難, 眩冒, 轉筋, 陰縮兩筋攣, 善恐, 胸中喘, 罵詈
手太陰 肺經	善嚏, 臍上臍右小腹脹引腹痛, 泄瀉, 皮膚痛急及麻木, 洒淅寒熱
手少陰 心經	兩腎內痛, 腰背痛, 浸淫善笑, 善恐善忘, 上咳逆下氣泄, 眩仆, 身熱而腹痛, 悲
手太陽 小腸經	面白, 耳前熱, 苦寒

표 1 十二經病候 補充表

十二經見證(實際는 十一經見證으로 手少陽三焦經見證이 빠졌음), 그 論하는 次序는 足三陽, 手三陽, 足三陰, 手三陰이 順序로 證候를 論하는 않았고, ‘是動病’과 ‘是主病’은 『靈樞·經脉』에 ‘是動病’과 ‘是主病’과 또한 모두 같지 않으니<sup>171)</sup>, 위에서 보듯이 『靈樞·經脉』을 補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朱丹溪는 이와 같이 經脉病候를 增補 하였으며, 이는 經脉病候의 針刺治療作用을 확대하여 循經取穴에 매우 중요한 意義가 있다 하였다<sup>172)</sup>.

그는 이와 같이 十二經見症을 補充하여 後人의 臨床에 있어 價値가 있으니, 예로 後人이 肝經 行間과 太衝으로 皮膚搔痒症을 治療하고 膀胱經 承山을 便血症등을 治療에 사용 한다고<sup>173)</sup> 하였다.

2) 合生見症

『丹溪心法·十二經見症』에 “手足陰陽經合生見證. 頭項痛, 足太陽, 手少陰, 黃疸, 足太陰, 少陰, …… 汗出, 手太陽, 少陰, 足陽明, 少陽. 身體重, 手太陰, 少

症 狀	所 屬 經 絡	症 狀	所 屬 經 絡
頭項痛	足太陽, 手少陰	黃疸	足太陰, 少陰
面赤	手少陰, 厥陰, 手 足陽明	目黃	手陽明, 少陰, 太 陽, 厥陰, 足太陽
耳聾	手太陽, 陽明, 少陽, 太陰, 足少陽	鼻衄衄	手足陽明, 太陽
喉痺	手足陽明, 手少陽	目腫人痛	足厥陰
目眈眈無 所見	足少陰, 厥陰	膈咽不通不食	足陽明, 太陰
面生	足厥陰, 少陽	咽腫	足少陰, 厥陰
噤乾	手太陰, 足少陰, 厥陰, 手少陰, 太 陽	噤	手少陽, 足太陰, 膈咽不通不食, 足陽明, 太陰
胸滿	手太陰, 足厥陰, 手厥陰	胸支滿	手厥陰, 少陰
腋腫	手厥陰, 足少陽	脇痛	手少陰, 足少陽
胸中痛	手少陰, 足少陽	善口苦 汁	足少陽, 足陽明 逆
少氣咳嗽 喘渴上氣	手太陰, 足少陰	喘	手陽明, 足少 陰, 手太陰
臂外痛	手太陽, 少陽	掌中熱	手太陽, 陽明, 厥陰
肘攣急	手厥陰, 太陰	腸滿脹	足陽明, 太陰
心痛	手少陰, 厥陰, 足 少陰	痔	足太陽, 手足太 陰熱
凄然振寒	足陽明, 少陽	如人將 捕	足少陰, 厥陰
瘧	足太陰, 足三陽	汗出	手太陽, 少陰, 足陽明, 少陽
身體重	手太陰, 少陰		

표 2 手足陰陽經合生見證表

陰.”<sup>174)</sup>이라 하여 手足陰陽經合生見症을 소개하였는데, 이를 表로 만들어 보았다.

이 手足陰陽經合生見證35條는, 즉 每一證候를 手足陰陽經의 兩經, 或三經, 四經의 合經 病候라 하였다<sup>175)</sup>. 이는 臨床所見에 하나의 病症이 종종 여러 經이 合하여 生하니, 朱丹溪는 이를 論述하여 臨床意義가 있고 臨床에서 辨證 分經治療에 指針이 된다 하여<sup>176)</sup>, 後에 여러 醫家들이 이를 補充하여 各經의 病

171) 張吉. 各家鍼灸醫籍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 81.  
172) 張吉. 各家鍼灸醫籍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 82.  
173) 陳克正. 古今鍼灸治驗精華.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3. p. 139.

174) 朱震亨.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 193.  
175) 張吉. 各家鍼灸醫籍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 82.  
176) 陳克正. 古今鍼灸治驗精華.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3. p. 139.

證을 分하여 施鍼하였다.

### 3) 針과 灸의 作用에 대한 見解

朱丹溪는 針, 灸의 作用에 대하여 自身의 見解가 있어 이는 ‘陽有餘陰不足理論’의 鍼灸學上에 反映되어 瀉血이 爲主가 되었으며, 臟腑를 辨證하여 그 臟腑와 病症과 關聯있는 經穴의 五臟穴을 刺하였고, 艾灸에 補火와 瀉火의 分別있었다.

#### (1) 針刺瀉而無補의 見解

『丹溪心法·拾遺雜論』에 “針法渾是瀉而無補, 妙在押死其血氣則不痛, 故下針隨處皆可”<sup>177)</sup>라 하였다. 이에 『各家鍼灸醫籍選』에서는 그의 書의 針法이 비교적 적으며, 瀉血이 爲主고, 瀉血部位가 委中出血이 많고, 혹은 “隨處皆可”라 하여 氣血을 疏通하여 止痛하니, 이는 張子和平의 影響을 받았다고 하였으며, 또한 “針法渾是瀉無補”의 觀點으로 各種 陰虛證에 대해 針刺가 극히 적다고 하였다<sup>178)</sup>. 이에 대하여 『古今鍼灸治驗精華』에서는 針刺는 단지 瀉의 作用만 있고 補의 作用이 없다고 하여 瀉로 刺絡出血을 주장하였다<sup>179)</sup>.

그러므로 그의 針刺治療에 있어 刺絡出血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委中을 刺하여 出血시켜 瘀血腰痛을 治療하고 氣衝을 刺하여 出血시켜 吐血을 治하였으며, 喉痺의 治法에서 “痰結則吐之, 甚則砭出血之”라 하였고, 또한 “涼劑熱服是也, 宜刺少商出血”<sup>180)</sup>이라 하여 喉痺는 相火로 因하고 人火는 涼으로 平하므로 먼저 針으로 少商을 刺하여 出血하고, 후에 龍火發毒散을 用하여 喉痺를 治療하였다. 委中을 刺하여 痛風을 治하였으며 火針으로 核을 刺하여 瘰癧를 治療하였다.

① 刺絡療法에 있어서, 丹溪는 三稜針을 이용하여 刺絡出血療法를 針刺의 瀉法으로 사용했는데, 治驗例를 보면, 癩에서 “三稜針于 委中出血, 但不能忌口, 絕

房者, 不治之也.”<sup>181)</sup>라 하였고, 또한 腹痛에서 “絞腸痧作痛에 “宜刺委中出血.”<sup>182)</sup>이라 하여 委中을 出血을 하였으며, 『丹溪纂要·腰痛』腰痛의 治療에 있어 腎氣 虛弱하여 風濕이 勝함에 獨活寄生湯을 用할때 “血滯于下, 委中穴刺出血, 妙, 乃灸腎脈, 崑崙, 尤佳.”<sup>183)</sup> “瘀血(戴氏曰, 日輕夜重者是也)宜行血順氣, 用補陰丸加桃仁, 紅花(更宜加順氣藥香附之類) 委中(在臍中央約紋中動脈出血), 以其血滯于下也.” “腰曲不能轉者, 針人中妙.”<sup>184)</sup>라 하여 腹痛과 腰痛에서 瘀血로 인한 血滯에 委中을 刺絡出血시켰다

또한 咽喉痛에 『丹溪纂要·喉病』<sup>185)</sup>, 『丹溪治法心要·咽喉』<sup>186)</sup>에서 刺絡出血을 最上策이라 重視하였으며, 木舌治療에서도 『丹溪治法心要·小兒雜病類』<sup>187)</sup>, 『丹溪纂要·損傷』<sup>188)</sup>의 傷咬에서는 外傷에도 刺絡出血을 사용하였다.

『古今鍼灸治驗精華』에서는 刺絡法에서 보면 그는 河間과 張從正의 法을 따른 것을 알 수 있어, 四大家들이 刺絡法이 普遍的으로 多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였으며<sup>189)</sup>, 위 治驗例를 보면 丹溪 또한 多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② 五臟穴을 治療한 例를 살펴보면, 咽喉 治療에서

“針法, 以三稜針于少商穴, 刺之出血立愈.”라 하여 井穴을 利用하여 治療하였으며, 心腹痛治療에 있어서 “熱厥心痛, 身熱足冷, 痛甚則 煩躁而吐, 額汗, 脈洪, 宜刺太溪, 崑崙. 大實心痛, 卒然發痛, 便秘久而注悶, 心胸高起, 按之痛, 不能飲食, 可下之. 胃病者, 腹脹胸滿, 胃脘當心而痛, 上肢兩脇, 膈咽不通, 飲食不下, 刺大都, 太白. 脾病者, 腹脹, 食則吐嘔, 善噫, 胃脘痛也, 心下急痛如錐刺, 刺太溪. 腎心痛 痛與背相接, 善恐,

181) 朱震亨.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 113.

182) 朱震亨.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 387.

183) 朱震亨.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 390.

184) 天津科學技術出版社總纂. 金元四大家醫學全集.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 1296.

185) 天津科學技術出版社總纂. 金元四大家醫學全集.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 1304.

186) 朱震亨.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 953.

187) 朱震亨.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 997.

188) 天津科學技術出版社總纂. 金元四大家醫學全集.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 1325.

189) 陳克正. 古今鍼灸治驗精華.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3. p. 139.

177) 朱震亨.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 468.

178) 張吉. 各家鍼灸醫籍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 82.

179) 陳克正. 古今鍼灸治驗精華.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3. p. 139.

180) 朱震亨.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 621.

如從後觸其心偃僕，刺束骨，合谷，崑崙。脾心痛，狀若死，終日不得休息，取行間，太衝。肺心痛，臥，若起居動作益痛甚，刺魚際，太淵。”<sup>190)</sup>이라 하여 각 心腹痛을 나누어 症에 따라 臟腑를 辨證하여 그 臟腑와 病症과 關聯있는 經穴의 五腧穴을 刺하였다.

劉完素의 心痛治療과 비교하여 表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劉完素 心痛治療穴	朱丹溪 心痛治療穴
腎心痛	京骨, 崑崙, 然谷	束骨, 合谷, 崑崙
胃心痛	大都, 太白	大都, 太白(胃病者)
脾心痛	然谷, 太溪	行間, 太衝
肝心痛	行間, 太衝	
肺心痛	魚際, 太淵	魚際, 太淵

표 3 劉完素의 心痛治療法

이와 같이 心痛治療에 있어서 腎心痛에서 劉完素와 京骨과 合谷이 다르고, 劉完素의 肝心痛과 朱丹溪의 脾心痛이 治療穴이 같지만 病名이 다르다. 다른 內容은 같아 劉完素가 心痛治療에서 『靈樞·厥病』을 따라 治療한 內容을 朱丹溪도 이를 인용하여 針刺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中風의 針刺治療에 있어, 그 病症을 經에 따라 分經하여 治療하였는데, 『丹溪纂要·中風』에서 “凡中風, 不察六經之加減, 雖治之不能去其邪也”라 하여 經을 따라 治한다 하여 太陽經中風을 “中風 無汗, 惡寒, 麻黃續命主之 …… 宜針至陰出血, 崑崙 舉蹻(『素問病機氣宜保命集』에는 陽蹻).”라 하였고, 또한 “中風, 有汗, 惡風, 桂枝續命主之 …… 宜針風府.”라 하여 有汗과 無汗을 나누어 治療하였으며, 陽明經中風은 “中風 有汗身熱, 不惡風, 葛根續命主之 …… 宜針陷谷, 去陽明之賊, 刺厲兌, 瀉陽明之實.”이라 하였고, 太陰中風은 “中風 無汗, 身涼, 附子續命主之 …… 宜刺隱白, 去太陰之賊.”이라 하였고, 少陰中風은 “中風 有汗, 無熱, 桂枝續命主之, 宜針太溪.”라 하였으며, 厥陰中風은 “古之續命混淆 無六經之別, 今分經治療, 又分經針刺法, 厥陰之井大敦, 刺以通其經, 少陽之經絕骨, 灸以引其熱, 是鍼灸同象法治之大本.”<sup>191)</sup>이라 하여 中風의

症狀을 六經病症으로 나누어 그 經絡을 따라 分經하여 立方하고 鍼灸治療 하였다.

이는 劉完素의 中風을 六經으로 分하여 治療한 것을 인용한 것으로, 丹溪 또한 劉完素의 中風治療를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後에 虞搏은 이를 丹溪의 中風六經治療라고 하였다.

(2) 灸法治療

艾灸의 補火와 瀉火의 分別이 있어, 이를 살펴보면, 『丹溪心法·拾遺雜論』에 “灸法有補瀉火, 若補火, 艾熯至肉. 若瀉火, 不要至肉便插除之. 用口吹風主散”<sup>192)</sup>이라 하여 『內經』의 補瀉法을 이어 灸法의 補法과 瀉法을 말하였다.

그리고 鍼灸治療法을 보면, 灸法이 많았고, 灸法의 補瀉에서 瀉火와 補虛의 可함을 明確하게 하여 陽常有餘에 마땅히 瀉하고 陰常不足에 마땅히 補하는 學術思想과 有關하다.

“陽常有餘 陰常不足”의 辨證觀點에서 보면 一律의 瀉陽의 法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火盛耗陰한, 즉 瀉火滋陰을 取하였고, 陽虛津液不足한, 즉 生陽하여 陰을 化한다 하였다. 그는 灸法에 鑿竅疏風, 大瀉肺氣, 升提中氣, 補腎通絡, 解毒消痛, 止痛調肝, 止血消腫, 回陽固脫, 散火祛痰, 清熱養陰 등의 作用이 있다고 하였으며<sup>193)</sup>, 魏稼 그의 灸法作用에 대하여 大瀉肺氣, 鑿竅疏風, 泄引熱下, 補火泄火, 消腫導毒 등으로 總結하여<sup>194)</sup> 그 應用範圍가 넓다.

또한 그는 灸法에 直接灸, 間接灸를 利用하였으며, 間接灸는 隔薑灸, 隔鹽灸, 隔土灸, 隔附子餅灸, 隔皂角灸 등이 있다<sup>195)</sup>.

한편 寒症施灸는 前부터 있었고, 그는 熱症에 施灸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① 實熱症에 대하여 그는 艾灸는 ‘撥引熱毒’, ‘散火’或 ‘泄引熱下’할 수 있다고 하여 治療에 있어 鼻流臭

190) 朱震亨.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 611.  
191) 天津科學技術出版社總纂. 金元四大家醫學全集.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 1257.

192) 朱震亨.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 468.  
193) 張吉. 各家鍼灸醫籍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 82.  
194) 魏稼. 各家鍼灸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p. 66.  
195) 張吉. 各家鍼灸醫籍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 82.

涕의 痰鬱火熱症을 治함에 上星, 三里, 合谷을 取하여 灸하였고, 兩手大熱骨厥症 治療에 湧泉을 取하여 灸하였다.

熱症에 灸함이 可하니, 그는 『靈樞·背俞』의 灸分補瀉의 學說을 繼承하여 “灸法有補瀉火……用口吹風主散”이라 하였으며, 灸法 역시 攻邪의 觀點이 있는 高로 實熱症에 使用할 수 있으니, “火以暢達, 撥引熱毒, 此從治之意”<sup>196)</sup>라 하였고, “大病虛脫, 本是陰虛, 用艾灸丹田者, 所以補陽, 陽生陰張故也.”<sup>197)</sup>라 하여 實熱과 虛熱의 兩方面에 包括하여 灸法에 攻補의 兩面의 作用있음을 말하였다.

『各家鍼灸學說』에서는 『丹溪心法』에 “有脚氣衝心者, 宜四物湯加炒黃柏, 再宜湧泉穴用附子末津唾調傳上. 以艾灸, 泄引熱下.”<sup>198)</sup>라 하였으며 『脈因證治』에 “兩手大熱爲骨厥, 如在火中, 可灸湧泉五壯, 立愈.”라 하여 泄引熱下作用이 있다 하였고, 또 『續名醫類案』에 丹溪의 鼻流臭涕중 ‘痰鬱火熱之症’<sup>199)</sup>에 上星, 三里, 合谷 등의 穴을 灸하고 清熱祛痰劑를 服用하면 愈한다 하여 散火祛痰作用이 있다고 하였다<sup>200)</sup>.

② 虛熱症에 대하여 艾灸로 補陽하고 陽이 생하면 陰이 長할 수 있다 하여 虛脫陰虛症 治療에 丹田을 灸한다 하였고, 『名醫類案』에 壯年の 咳嗽咯血하고 發熱肌瘦者에게 丹溪는 肺俞에 五次 灸하여 愈한다 하였으니 養陰清熱 作用이 있다고 하였다<sup>201)</sup>.

③ 可灸와 不可灸에 대하여 丹溪는 『丹溪手鏡·汗吐下溫水刺灸八法』에서 “可灸. 少陰, 得之一二日, 口中和, 背惡寒者, 可灸. 少陰吐利, 手足不逆反熱, 脈不至, 可灸. 少陰傷寒六七日, 脈微手足厥, 煩躁, 可灸. 其厥陰不還者死. 傷寒脈促, 手足厥逆, 可灸, 少陰厥陰主逆, 諸下利, 手足厥, 無脈, 可灸. 灸之不溫, 反微喘者死, 可灸足大敦, 陰陵泉, 商丘.”라 하여 少陰의 寒症에

灸가 可하고, 少陰厥陰의 手足厥에 大敦과 陰陵泉, 商丘을 灸한다 하여 灸가 可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였다. 또한 “不可灸. 微數之脈不可灸, 因火爲邪, 脈浮當汗不可灸, 因火而盛.”<sup>202)</sup>이라 하여 火邪로 因할 때와, 火가 盛한 時期에는 不可하다는 不可灸에 대하여 말하였다. 이외 夏月 施灸에 대하여 “夏月陽氣盡浮于表, 今醫灼艾, 多在夏月, 寧不犯火逆之戒乎!”라 하여 夏월에 灸하면 陽氣가 表에 在하는 時期므로 火逆이 될 수 있다 하였다<sup>203)</sup>. 이처럼 灸法에 慎重을 기하였다.

④ 瘡瘍에서도 “癰疽始發則以艾灸之, 可使輕淺, 騎竹馬灸法尤妙. 蓋火以暢達, 撥引鬱毒, 此從治之意, 惟頭爲諸陽所聚, 艾炷宜小而少, 若身上必痛灸至不痛, 不痛灸至痛, 有因灸而死者, 蓋虛甚, 孤陰將絕, 其脈必浮數而大且鼓, 精神必短而昏, 無以抵擋火氣, 宜其危也, 按河間灸刺法謂凡瘡瘍順分經絡部分, 血氣多少, 愈穴遠近. 從背出者, 宜從太陽五穴選用. 至陰, 通谷, 束骨, 崑崙, 委中. 從髻出者, 當從少陽五穴選用, 竅陰, 陽輔, 陽陵泉. 從出者, 當從陽明五穴選用, 厲兌, 內庭, 陷谷, 衝陽, 解溪. 從腦出者, 則以絕骨一穴, 針之法可是于經小證候, 吮出惡血. 若積毒在臟腑者, 徒竭其血于外, 無益也.”<sup>204)</sup>라 하여 瘡瘍의 治療에 대한 灸法에서 河間의 瘡瘍灸法을 따라 經絡流注部位과 氣血의 多少를 나누어 刺出血하였고, 腧穴의 遠近을 나누어 取穴하여 太陽五處穴과 少陽五處穴, 陽明五處穴로 治療하였다.

疔瘡證에 丹溪가 말하길 “疔瘡初生急用艾炷灸之, 若不覺痛, 針瘡四邊, 皆令血出, 若針之不痛無血者, 以猛火燒針通赤, 于瘡頭上烙之, 令如焦炭, 取痛爲效, 如針不痛, 其人眼睛發黑, 或見火光者不可治”라 하여 初生時에 灸하며, 瘡의 四邊에 針刺治療하니, 疔瘡治療에 針과 灸를 사용하여 治療하였음을 알 수 있다.

瘰癧症에는 “若體虛者, 以補養之藥佐之, 外施隔蒜艾灸, 亦漸收效.”라 하여 補養의 藥으로 體虛者는 佐하고 外로 隔蒜灸를 하였고<sup>205)</sup>, 또한 “每核灸七壯, 口

196) 天津科學技術出版社總纂. 金元四大家醫學全集.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 1317.

197) 天津科學技術出版社總纂. 金元四大家醫學全集.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 1289.

198) 朱震亨.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 352.

199) 江瓏. 名醫類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 575.

200) 魏稼. 各家鍼灸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p. 67.

201) 魏稼. 各家鍼灸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p. 67.

202) 朱震亨.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 509.

203) 陳克正. 古今鍼灸治驗精華.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3. p. 140.

204) 天津科學技術出版社總纂. 金元四大家醫學全集.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 1317.

205) 陳克正. 古今鍼灸治驗精華.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中覺烟起爲度, 膿盡則安. 初生起時灸曲池, 男左女右.”<sup>206)</sup>라 하여 曲池穴에 男左女右로 施灸하였다.

乳癰에서 “若加以艾火兩三壯於腫處, 其效尤捷, 不可輒用針刀, 必至危困.”<sup>207)</sup>이라 하여 乳癰에는 腫處에 灸하며, 針刀를 사용함이 不可하다 하였다.

이처럼 그는 瘡瘍治療에서 劉完素의 法을 따랐으며, 虛熱證과 實熱證에도 灸法을 사용하였다. 그가 사용한 灸法의 作用에는 大瀉肺氣, 鑿竅疏風, 泄引熱下, 補火泄火, 消腫導毒 등이 있어 瀉火滋陰하였으니, 이는 그의 滋陰學說에 一致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면 朱丹溪는 針法을 瀉法으로 사용하면서 刺絡出血을 多用하였고, 灸法을 이용하여 補虛하면서 實熱과 虛熱을 瀉하였으니, 그의 滋陰派로서 滋陰降火하는 學說에 따른 立方과도 一致하는 鍼灸法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鍼灸治療에 있어서 瀉火派인 劉完素의 治療法인 中風六經治法과 五俞穴을 이용한 心痛治療, 瘡瘍灸法 등을 본받아 多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III. 結論

金元四大家의 鍼灸治療에 대하여 文獻를 통한 研究를 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劉完素는 刺絡出血 등을 鍼灸瀉熱法으로 使用하여 大刺八關法으로 清熱瀉火하였다. 通經接氣法과, 接經三法, 分經取穴法 등을 사용하여 原穴과 五腧穴을 重視 하였다. 灸法으로 引血下行하여 瀉督脈熱하였고, 灸法을 瘡瘍 등 일정한 範疇에서 施行하였다.

2. 張從正은 汗法으로 針刺療法을 使用하였으며, 劉完素의 影響으로 辨證論治와 鈹針을 이용해 刺絡出血療法으로 外科의 疾患뿐 아니라 內科의 疾患까지 治療하여 그 使用範圍를 擴大 發展하였다. 經絡臟

腑의 病에 對하여 항상 循經取穴하였으며, 灸法에 있어 慎重하였고 刺針法과 灸法을 兼用하여 五臟病症을 治療하였다.

3. 李東垣도 瀉陰火法에서 背俞穴과 刺絡出血을 利用하였다. 補脾胃하기 위하여 腹募穴과 下合穴과 虛則補其母의 方法으로 穴을 取하였으며, 五亂針法, 標本治療에서 五腧穴을 利用하여 治療하였다. 瘡瘍治療에 있어 灸法을 多用하였다.

4. 朱震亨은 針이 瀉함이 있고 補함은 없다고 하여 瀉함에 三稜針으로 刺絡出血法을 주장하여 『靈樞』의 十二經見證과 合生見證을 補充·增入하였으며, 劉完素의 中風分六經針刺法과 心痛에 接經三法, 瘡瘍灸法을 引用하였다.

5. 劉完素의 刺絡出血하는 治療法을 張從正이 繼承하여 刺絡出血療法을 더욱 發展시켜, 鈹針(鈹針)을 이용하여 外科的, 內科的 疾患에 適用하였으며, 이러한 影響은 張元素에게 주었고, 또한 李東垣과 朱震亨에게도 影響을 미쳤으며, 金元四大家는 鍼灸에 있어 公同적으로 瀉法으로 刺絡出血療法을 多用하였다.

### 參考文獻

<논문>

1. 閔富基, 吳旼錫. 刺絡療法の 文獻的 考察. 大田大學校 韓醫學研究所論文集 第13卷 2號. 2004.
2. 尹憲重, 金容辰. 金元四大家의 婦人科疾病 認識에 대한 研究. 大田大學校 韓醫學研究所 論文集 제12권 제2호. 2004.
3. 金允熙, 李賢, 李秉烈. 井穴刺絡療法에 關한 文獻考察. 大田大學校 韓醫學研究所論文集 第10卷 1號. 2001.
4. 李成魯, 李賢, 李秉烈. 齒痛의 病因病機 및 鍼灸治療에 대한 文獻的 考察. 大田大學校 韓醫學研究所論文集 第10卷 1號. 2001.

1993. p. 135.

206) 朱震亨.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 425.

207) 朱震亨.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 425.

5. 金首將, 李秉烈. 咳嗽의 病因分類와 鍼灸治療에 대한 文獻의 考察. 大田大學校 韓醫學研究所論文集 第9卷 1號. 2000.
  6. 李鍾武, 李秉烈. 口眼窩斜에 使用되는 灸法에 관한 文獻의 考察. 大田大學校 韓醫學研究所論文集 第8卷 1號. 1999.
  7. 조규선. 張從正의 中風論에 관한 考察. 大韓韓方內科學會紙 제18권. 1997.
  8. 김민식. 劉完素 中風論에 관한 考察. 大韓韓方內科學會紙 제18권. 1997.
  9. 李俊昊, 李秉烈. 灸法의 養生保健에 관한 文獻의 考察. 1997.
  10. 宋永鎬, 金漢星. 喉痺의 病因病機 및 鍼灸治療에 대한 文獻의 考察. 大田大學校 韓醫學研究所論文集 第5卷 2號. 1997.
  11. 李壯載, 成樂箕. 丹毒의 原因 및 鍼灸治療에 대한 文獻의 考察. 大田大學校 韓醫學研究所論文集 第3卷 2號. 1995.
  12. 宋範龍, 李南九. 鍼灸學 發達の 文獻의 考察. 우석대학교 論文集 제17집. 1995.
  13. 이재동, 최도영, 이혜경. 鍼灸學史에 대한 文獻의 考察(I). 大韓鍼灸學會紙 제11권. 1994.
  14. 金重漢. 朱震亨의 滋陰學說과 張介賓, 李奎峻의 扶陽學說에 대한 比較연구. 東醫大學校 東醫論集 제 20집. 1993.
  15. 金洋直. 絡脈과 絡刺法에 관한 文獻의 考察. 大田大學校 論文集 第6卷 第2號. 1987.
  16. 朴快煥. 針施術의 補瀉手技法에 관한 文獻의 考察. 大田大學校 論文集 第6卷 第2號. 1987.
  17. 송강변. 張從正의 生涯와 醫學思想. 慶熙韓醫大論文集 Vol.9. 1986.
  18. 宋隆燮. 張從正의 生涯와 醫學思想. 慶熙大學校. 1986.
  19. 송철호, 홍원식, 김광호. 金元四大家에 관한 研究. 慶熙韓醫大論文集 Vol. 9. 1986.
  20. 최삼섭. 李東垣의 生涯와 醫學思想. 慶熙大韓醫大論文集 V4. 1981.
- <단행본>
1. 盛增秀. 醫學全書 王好古.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2. 洪元植, 尹暢烈. 中國醫學史. 서울. 一中社. 2001.
  3. 大田大學校제 12기 졸업준비위원회. 病機氣宜保命集. 서울. 木과土. 2000.
  4. 王啓才. 當代鍼灸醫學新論. 北京. 中醫古蹟出版社. 2000.
  5. 曹炳章. 中國醫學大成續集 17, 20, 36.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6. 高爾鑫. 王石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7. 靳瑞. 鍼灸醫籍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8.
  8. 陸壽康. 針刺手法百家集成. 北京. 中醫古蹟出版社. 1998.
  9. 薛己. 薛氏醫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10. 이재동, 김남일. 중국 침뜸의학의 역사. 서울. 집문당. 1997.
  11. 江權. 名醫類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12. 王德深. 中國鍼灸文獻提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13. 黃龍祥.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6.
  14. 天津科學技術出版社總纂. 金元四大家醫學全集.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15. 康鎖彬. 中國鍼灸通釋 針法灸法學. 河北.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5.
  16. 葉川編.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17. 王德深. 中國鍼灸穴位通鑒. 青島. 青島出版社. 1994.
  18. 張介賓. 景岳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19. 郭世余. 中國鍼灸史. 서울. 醫聖堂. 1994.
  20. 李杲. 蘭室秘藏. 서울. 醫聖堂. 1994.
  21. 張從正. 子和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 1994.
22. 張吉. 各家鍼灸醫籍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23. 朱震亨.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24. 張子和. 儒門事親. 서울. 大成文化社. 1993.
  25. 傅維康. 鍼灸推拿學史. 서울. 醫聖堂. 1993.
  26. 嚴世芸. 中醫醫籍通考. 서울. 醫聖堂. 1993.
  27. 楊繼州. 鍼灸大成校釋. 서울. 大成文化社. 1993.
  28. 朱震亨. (新編)丹溪心法附餘. 서울. 大成文化社. 1993.
  29. 陳克正. 古今鍼灸治驗精華.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3.
  30. 王德深. 中國鍼灸學. 天津. 天津科技翻譯出版公司. 1992.
  31. 王執中. 鍼灸資生經. 서울. 一中社. 1992.
  32. 高武. 鍼灸節要. 서울. 一中社. 1992.
  33. 裘沛然. 新編中國鍼灸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2.
  34. 津科學技術出版. 金元四大家醫學全集1,2.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35. 王冰. 素問王冰注. 臺灣. 臺灣中華書局. 1991.
  36. 楊維傑. 黃帝內經靈樞釋解. 서울. 一中社. 1991.
  37. 楊維傑. 黃帝內經素問釋解. 서울. 一中社. 1991.
  38. 李東垣. 東垣十種醫書. 서울. 大成文化社. 1991.
  39.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一中社. 1991.
  40. 上海中醫學院中醫文獻研究所. 歷代中醫珍本集成11,13,34.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41. 朱邦賢, 王若水. 歷代中醫珍本集成20.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42. 魏稼. 各家鍼灸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43. 北京中醫學院. 中醫名家學說. 서울. 醫聖堂. 1987.
  44. 劉純. 劉純醫學全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45. 李聰甫, 劉炳凡. 金元四大醫學家學術思想研究. 서울. 成甫社. 1985.
  46. 朱震亨. 丹溪治法心要. 山東. 山東科學技術出版社. 1985.
  47. 張子和. 儒門事親校註. 河南.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4.
  48. 李杲. 內科傷辨. 江蘇省.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4.
  49. 王新華. 中醫歷代醫論選. 江蘇省.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50. 羅天益. 衛生寶鑑. 香港. 商務印書館. 1981.
  51. 高武. 鍼灸聚英. 서울. 醫聖堂. 1978.
  52. 劉河間. 劉河間傷寒三六書. 서울. 成甫社. 1976.
  53. 虞天民. 醫學正傳. 서울. 醫藥社. 1973.